

## 한국십진분류표 600: 예술

2024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한국십진분류표에 맞춰 각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 600, '예술'입니다.

조형미술, 공예, 서예, 회화, 사진예술, 음악 등  
예술 관련 도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오늘의 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http://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도서관과 오늘 예술로 풍요로운 세상 살기	04
주목! 이 도서 예술 분야 1위 도서 《삶은 예술로 빛난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	08
도서관 산책 예술과 도서관: 도서관은 문화예술 공간이다	10



발행일 2024년 8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배명희, 손효림, 이은경, 김혜련  
편집 박정연 [todayslibrary@korea.kr](mailto: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http://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9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brary1004>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표지 이야기 / 일러스트 **민지홍**  
《오늘의 도서관》 9월호 주제는 ‘예술’입니다.  
작가는 언어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화가는 색채와 형태  
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책의 텍스트를 시각적  
으로 표현해 독자에게 더욱 풍부한 상상력을 주기도 합  
니다. 이처럼 책과 예술이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도서관을 만나다

사서 큐레이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추천 도서	14
오늘의 만남 “AI 시대에도 국가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18
꿈을 이루는 도서관 이 도시가 도서관을 여행지로 만드는 법 전주 도서관 여행	22
보물을 찾아서 나폴리 국립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di Napoli)과 종이의 기원, 파피루스	26
도서관 트렌드 도서관에서 문해력 키우기	30

서재를 걷다

문헌의 가치 현대 인쇄본으로 처음 간행된 송시열의 여성 교훈서 《우암선생계여서》	34
문학상 읽기 누가 진정한 인간일까?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38
나를 바꾸는 독서 삶의 형식으로서의 창조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	42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며 살펴본 ‘최근 3년간 예술 분야 인기 도서 분석’	46
똑똑한 독서 생활 감각 너머를 상상하기 위한, 예술 서가 독서법	48

함께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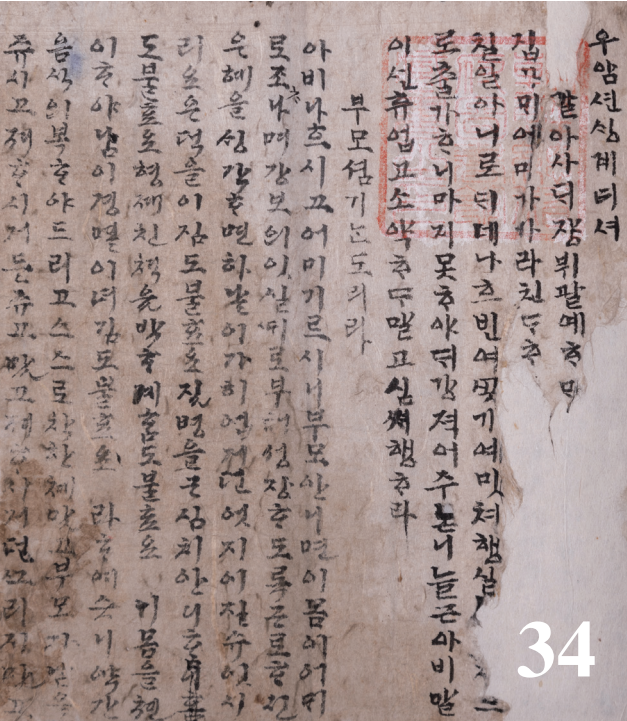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2
국내외 도서관 소식	56
한 장의 감성	59



18



26



3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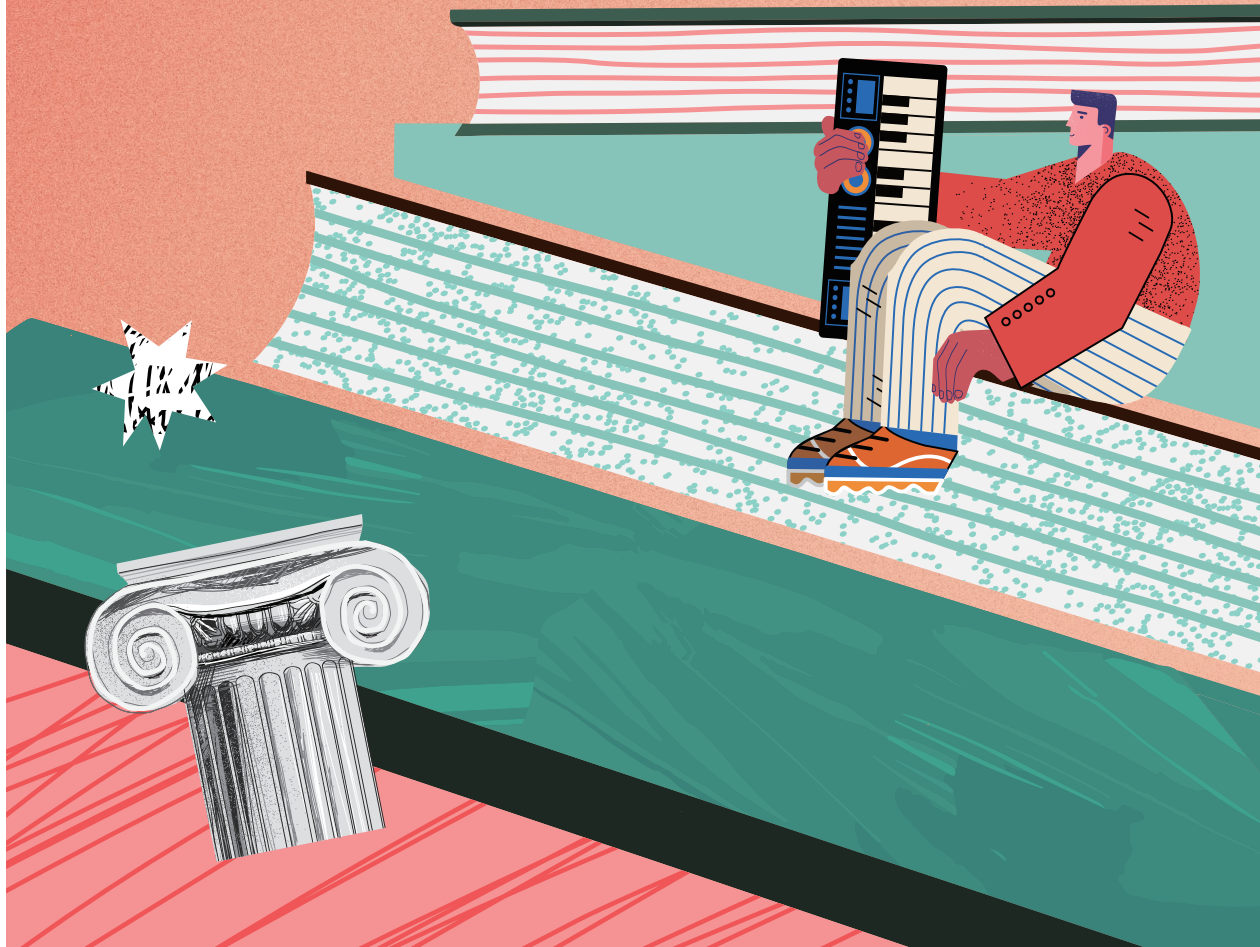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  
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rl.or.kr](http://www.kogrl.or.kr)



## 예술로 풍요로운 세상 살기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즉, 희망을 먹고 산다. 오늘을 잘 살고 싶고, 기왕이면 앞으로 더 잘 살고 싶다. 그러나 뭐든지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마다하지 않으며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세상은 넓고 생명은 유한하며, 물리적인 시공의 제약 및 체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언제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기란 역부족이기에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간접 체험이 필요하다. 체력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체험을 충분히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으로 하는 간접 체험을 추천한다.

글 임상빈(《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저자)



000 종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	-----------	-----------	-------------	-------------	-------------	-----------	-----------	-----------	-----------

###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예술이란?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일곱 번째 분류인 예술에는 조형미술 및 공예, 서예, 회화, 사진예술, 음악 등이 해당한다.

### 사람은 책과 함께 성장한다

우리 마음은 나뭇의 우주다. 그리고 그 우주는 여러모로 책에 반영된다. 실제로 책은 다양한 우주를 보여주는 매우 오래되고 유용한 도구로서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했다. 비유컨대 도서관은 우주여행사, 그리고 독서는 우주여행이다. 다른 이의 고양된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니, 더 이상 축지법과 분신술이 남부럽지 않다.

한편으로, 대화도 상대방의 우주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다. 말뿐 아니라 표정과 자세 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은 독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우주를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저자와 독자가 대화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문장 나뭇의 거리 두기와 사색의 기회, 그리고 재방문 가능성은 대화와는 다른 장점을 지닌다. 즉, 책은 잘만 활용하면 평생의 동반자로서 참 좋은 영양제인 셈이다.



### 행복을 위한 인문예술의 발전사

사람은 불안전하다. 그야말로 나약하고 참으로 불안하다. 따라서 마음을 다잡으려면 때에 따라 의지할 대상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언제 어디서 맹수가 공격하거나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역병이 활개를 칠지 모르던 시절, 사람들은 다양한 '주술'에 의지했다. 훗날 이는 '종교'로 발전해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특정 신이 든든히 지켜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신비주의적이며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굳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야 하는 것이다. 이후 논리적인 공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제도가 정착하고 각자에게 의무와 책임, 권리가 부과되면서 점차 '개인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문맹률은 낮아졌고 막연하게 신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힘을 키워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대학' 교육 시스템의 발전이다. 그중 가장 먼저 주목한 분야가 바로 객관적인 외부 세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자연과학'이었다. 종교가 아닌 과학, 신이 아닌 이성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무지 주관적인 마음 세계와 관련이 적은 ‘자연과학’만으로는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발전한 것이 ‘사회과학’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심리학은 개인적인 심리, 사회학은 사회적인 현상에 주목하며 사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물론 ‘과학’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학계에서 논증 가능한 학문적인 일관성과 엄격성은 필수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구조화된 방법론만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욕구를 채우기 어려웠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학문으로서의 ‘인문예술’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특정 관심사에 주목하고 공감하며 여러 관점으로 논쟁을 즐겼다. 또한 다양한 담론을 파생하고 음미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면세계를 다잡고 나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문학은 문장으로, 미술은 이 미지로, 음악은 소리로, 무용은 몸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생성하며 사람됨의 가치를 실현해 오기 시작했다.

### 가치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 예술

현재 우리 사회의 ‘대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예술’의 최고봉을 지향한다. 특히 ‘순수예술(fine art)’은 ‘자연과학’과 대립항의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우선, 순수예술은 객관적인 검증이 전제되는 무균실의 실험실 환경을 이상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그날의 날씨나 감정이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기표현에 충실하니 종종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구분이 사라진다. 예술가는 내면으로 파고들며 스스로 자신을 연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리적인 실재계의 공식 도출보다는 인식적인 마음계의 변수 생성이 관건이 되므로 주관적인 주체가 영위해 온 특별한 삶과 구체적인 가치관이 중시된다.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왜 그랬는지보다 총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술’은 보편적 진리보다 개인적 진실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에 매진하면 때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술에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술은 다양하다. 그리고 새롭다”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개별자로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다. 행복한 삶이란 개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서로의 우주는 다 다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순수예술’을 전공한 필자는 진실로 나를 표현할 때 충분한 만족감을 맛본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은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이때 내 인생은 내게 중요하며, 결국 그 가치는 스스로 평가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심이 된다.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천상의 마술,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밤이에요”를 외쳤던 배우가 진정으로 아름다웠던 건 객관적인 실재로서 당시의 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한 모두의 마음이 똑같이 아름답진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건 그때 그 순간, 몹시도 그 배우의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사실이다.

### 가치로운 삶을 도와주는 방법: 독서

‘예술’은 명사적 실체로서의 ‘예술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사적 과정으로서의 ‘예술하기’가 보다 적합한 예술에 대한 이해이다. 예컨대 인류학을 한다는 것은 인류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방법론으로 연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예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방법론으로 연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를 확장하면, 예술 표현을 하는 예술가만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예술 감상을 하는 관람객도 ‘예술’을 하는 것이다. 예술을 감상하는 동안 마음 안에서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동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를 음미하며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예술적인 행위인 것이다.

물론 어떤 학문이건 단숨에 뛰어난 연구자가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깨닫는 영감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하기’도 마찬가지이다. 예술 학문의 특성상 개인이 주체가 되고 예술가의 마음이 대상이기에 그 원리와 요령을 잘 숙지한다면 비교적 다른 여러 학문에 비해 접근이 수월할 수도 있다. 이때 ‘예술 도서’가 기능한다. 예술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자면, 우선 목적론적으로 ‘스스로 예술’이 되는 경우는 시나 소설처럼 그 자체로 예술품인 경우다. 다음, 방법론적으로 ‘예술하는 안내서’는 역사나 비평처럼 예술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다 알게 모르게 글쓴이의 우주를 펼쳐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찬찬히 관련 도서의 글을 읽으며 그의 생각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예술하기’에 익숙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독서는 수많은 암묵적인 생각 연습으로 점차 우리를 성숙시킨다. 특히 예술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잘 사는 궁극의 비법이 될 수 있다. ❶

#### 임상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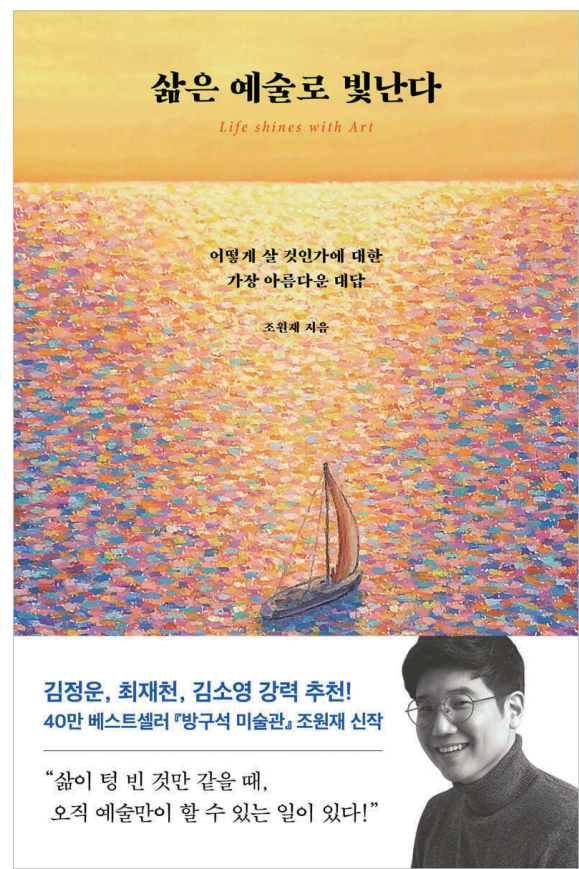
현대미술 작가로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세종도서’로 선정된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2019) 등, 지금까지 총 8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이자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예술 분야 1위 도서 《삶은 예술로 빛난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

‘예술’이라고 하면 대개 작품을 떠올리게 된다. 아울러 그 작품의 창작자를 연상하게 된다. 이렇게 작품과 작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자체를 예술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오래된 사회적 관성 때문일 수도 있다. 조원재 작가의 《삶은 예술로 빛난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우리가 흔히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바꿔 놓는다.

글 김현식(문화평론가) 사진 출판사



## <예술 분야 도서 대출 순위>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삶은 예술로 빛난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	조원재 지음	다산초당	2023
2	《그림들: 모마 미술관 도슨트북》	SUN 도슨트 지음	나무의 마음	2022
3	《뜻밖의 미술관: 생각을 바꾸는 불편하고 위험한 그림들》	김선지 지음	브라이트	2023
4	《예썰의 전당: 서양미술 편(예술에 관한 세상의 모든 썰)》	KBS <예썰의 전당> 제작팀 지음	교보문고	2023
5	《이건희 컬렉션: 내 손안의 도슨트북》	SUN 도슨트 지음	서삼독	2022

\* 대출 순위 조사 기간: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17일  
(아동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http://www.data4library.kr))

## 삶과 예술은 분리되는 것일까

흔히 예술은 그냥 작품으로 앞에 있고 우리는 감상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족했다. 전문가들의 해석과 설명이 이해를 돕는다면 좀 더 좋았다. 한편으로 학생들은 온갖 작품을 기계적으로 외우거나 아니면 어른이라도 남에게 과시하듯 예술 작품을 장식처럼 걸치고는 했다.

또한 치열한 예술가 정신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고흐처럼 온갖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술혼에 감동하거나 찬양하기도 했다. 예술가들이 보여준 인생 역정의 스토리는 작품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도 했다.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 작품에 대한 감동도 덜한 듯싶다. 하지만 정작 이를 대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처럼 살 수가 없다. 더구나 평범한 생활인이자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예술가들의 삶도 결국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술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듯싶다. 그런데도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은 없었다. 사실 예술가들조차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어쩌면 예술가와 일반인의 철저한 이분법이 삶과 예술의 분리라는 점에서 그간 공통적이었던 게 우리 사회였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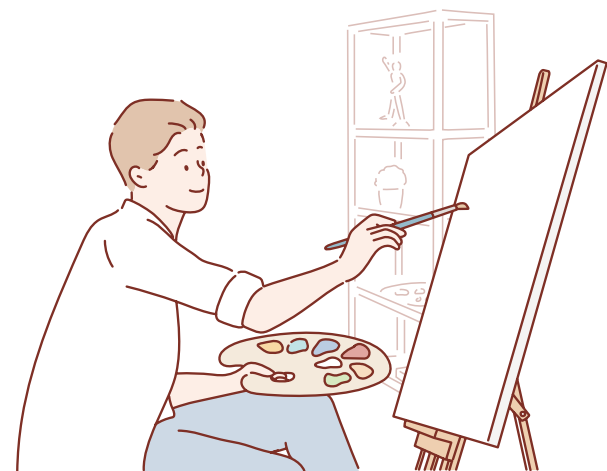
## 비록 빛나지 않을 삶이라도 예술같이

이 책에서 “삶은 단 한 장의 백지를 던지고 우리에게 묻는다. 무엇을 그릴 거냐고. 삶이 던진 그 백지 앞에 우리는 붓이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의미심장했다. 예술 작품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은 내가 스스로 붓이고 연필이며 조각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삶을 시작할 때 백지인 상태였고, 이 시간에도 붓처럼 뭔가 그려가고 있는 내 인생 예술의 작가인데 말이다. 달리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술가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을 일상과 분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삶과도 분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이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삶이 곧 예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더 나은 가치와 소중한 그 무엇을 삶에 담아내고 싶어진다. 백지에 아무것도 그리려는 붓은 없기 때문이다.

흔히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삶에도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삶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한다. 자꾸 남의 삶과 비교하고 우위를 따진다. 그렇게 할수록 사회 구성원의 삶과 일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예술작품을 하나의 기준으

로 평가한다면 더는 예술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예술은 다른 누군가 주목하지 않아도 의미부여나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물론 그런 예술은 처음에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꼭 빛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술이 꼭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삶이 명성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게 분명하다.

예술로 보는 삶은 개인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분명 그러한 예술로 삶을 바라본다면 자신의 삶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매우 소중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우리 사회에는 정말 부족했다. 그렇기에 개인들은 행복이 덜했는지 모른다. 자신이 스스로 도화지를 채워가는 붓이라는 생각도, 실제로 그려보지도 못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 그림이 화려하든, 빛나지 않은 오늘도 예술가처럼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점을 인식하며 이 순간에도 백지를 완성해 가야 한다. 그것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는 공동의 삶이다. ㉠



김현식 •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중원대학교 특임교수이자 미래학회 연구학술인이며, 대표 저서로는 《문화로 읽는 세상》이 있다.

## 예술과 도서관: 도서관은 문화예술 공간이다

문화공간이란 각종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한다. 이런 시설을 잘 갖춘 곳 중의 하나가 공공도서관과 미술 전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여행 중에 도서관을 찾는 이유이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고, 때론 전시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쉬는 즐거움은 덤이다.

글 이애란(문화정보학 박사)



###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일반적인 도서관과 달리 미술 전문도서관은 특화된 미술 자료를 이용하고 예술품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전국적으로 국립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 등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최초의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인 의정부미술도서관을 비롯하여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에도 도서관이 있다. 미술 전문도서관마다 운영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도서관의 역할은 같다. 도서관에는 문화공간으로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교육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전시 공간, 그룹 스터디, 개인 열람, 과제 수행, 메이킹 공간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휴게 공간과 식음 공간, 그리고 북 카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여가 문화가 조성되자 도서관의 문화공간 이용과 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도서관들은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용하여 예술을 매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술 활동 지원 역할이 확대되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과 행사, 전시회, 감상회, 연주회, 공연을 통해 첫째, 예술 욕구 해소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둘째, 예술 교육을 통해 잠재적 창의성의 발현 지원, 셋째, 문화예술 체험 및 상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에서의 기존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기능 확대로 이어졌고, 교육 용도에 맞는 공간 구조의 변화를 불러왔다.

### 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신기술이 보급되기 전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미술, 서예, 공예 활동 등은 강의실에서 운영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문화예술 범위가 넓어지고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교육 매체와 협업 수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자수 놓기 교육은 천과 바늘, 그리고 실만 있으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자수 기계를 이용한 수업은 디지털 장비와 비품을 갖춘 메이킹 공간에서만 할 수 있다. 특히 메이킹 수업의 경우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주도식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평생교육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창작 공간을 활용한 수업은 개별 수업보다 협업 수업이 효과적이어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알링턴 공공도서관에서는 메이킹 공간에 비치된 대형 자수 기계나 퀼팅 기계로 공예품을 만들고 티셔츠나 에코백에 그림이나 글을 새기기 위해 'Heat Press'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뉴포트 비치 공공도서관 미디어랩에서는 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악보를 만들거나 녹음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미래꿈희망창작소에서 다양한 '미꿈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융합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게 독서와 창작 활동을 접목한 '체험형 동화구연'은 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로 도서관의 정체성을 살린 우수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각 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대부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확대할 여력이 없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이 있다. 세 유형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관의 자원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접목한 강연 및 탐방형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교육 장소로는 '도서관 안팎'을 활용한다. 도서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지원 사업에 선정된 도서관들은 책을 매개로 한 '그림책 작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 운영 결과, 도서관은 타 문화기반시설보다 참여 인원이 많아 가장 효율적인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 드러난 바 있다. 책과 연계하더라도 신기술과



첨단 영상(VR, AR, MR), 방송(라디오, TV), 게임 등과 같은 비예술과 예술이 융합된 예술 영역은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에서 밝힌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측면에서 본다면, 신기술을 이용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 활동 강화를 위한 사물 서비스

핀란드의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Helsinki Central Library Oodi, 이하 오디도서관)는 개관하자마자 매일 평균 7,000여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다. 그들이 원했던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한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다양하게 구성된 최신 복합문화공간에서 하루 종일 체류하며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바느질을 배우고, 티셔츠에 문양을 넣고, 자작곡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전자기타 같은 음악용품을 책처럼 대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오디도서관을 홍보하고 있다.

오디도서관처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창작에 필요한 도구를 책처럼 선반에 비치하고 대여하는 사물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에 따라 사물 도서관의 운용 규모나 물품 목록은 상이하다. 예술용품 대여 영역에서 일상생활용품으로는 공예 키트, 재봉틀, 자수 기계가 있고, 놀이용품으로는 생일 파티용 노래방 기계, 바이킹 체스 세트가 있다. 또한 음악용품으로는 기타, 우쿨렐레, 테레민(Theremin), 소형 악기가 있고, 스포츠용품으로는 배드민턴 세트, 노르딕 워킹 폴(NordicWalking pole)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 사물 도서관에서 물품을 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수리 카페를 운영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는 매우 바람직하다.

#### 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앞으로 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신기술 도입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잘 융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예술 장르를 연계한 취미나 교양 활동에 치우친 평생교육이 아닌,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책, 지식과 정보, 특화 자료와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에서 예술과 신기술을 연계하여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단기적으로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지역 내 미술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이나 유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가 지원하는 미디어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다. 이런 곳들과 연계하면 음악 스튜디오와 메이킹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지원이나 장비 대여도 받을 수 있다. 셋째, 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 대출의 범위를 넘어 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물 대여와 수리 서비스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❶

#### 이애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도서관협회 이사를 지냈고, 울산광역시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운영위원장을 다년간 맡았다. 이러한 활약이 인정되어 '전문대학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울산과학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강의 중이다.

**14 사서 큐레이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추천 도서

**18 오늘의 만남**  
“AI 시대에도 국가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이 도시가 도서관을 여행지로 만드는 법  
전주 도서관 여행

**26 보물을 찾아서**  
나폴리 국립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di Napoli)과 종이의 기원, 파피루스

**30 도서관 트렌드**  
도서관에서 문해력 키우기



# 도서관을 만나다

#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 문학

##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에 노래를 : 창비시선 특별시선집

신경림 외 지음  
창비 | 2024

“나는 한때 사랑의 시들이 씌어진 책을 가지고 있었지요. 모서리가 나들나들 닳은 옛날 책이지요. 읽는 순간 봄눈처럼 녹아 버리는, 아름다운 구절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작은 책이었지요.”(17쪽)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매체를 소비하는 시대, 매일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느린 호흡으로 시를 읽는 행위는 현실과 다소 멀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를 읽는 사람들이 있고, 꾸준히 시집을 발간하는 출판사들이 있다. 그중 ‘창비시선’은 역사가 오랜 시집 시리즈 중 하나다. 1975년 신경림 시인의 《농무》 이후 차곡차곡 새로운 시집이 세상에 나왔고 지난 3월 드디어 500번째 책이 발간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401호부터 499호를 펴낸 시인들이 창비시선 전체에 걸쳐 즐겨 읽는 시를 추천하여 한 권으로 묶었다. 이 작은 책이 지닌 의미가 각별한 이유는 반세기를 관통하는 우리 삶의 면면을 ‘시’라는 특별한 언어로 담아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출간 의도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책을 펼쳐 들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두서없이 읽어보는 것일지 모른다. 좋은 시인이 추천하는 좋은 시를 곁에 두고 가까이하는 것. “모서리가 나들나들 닳”도록 꺼내 읽는 것.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시가 계속 쓰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 📖 저자 소개

**신경림** 창비시선 1번 작가이자 한국 시문학의 거목 신경림은 《문학예술》로 등단하여 시집 《농무》, 《새재》, 《가난한 사랑 노래》 등과 산문집 《민요기행》 등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 안희연·황인찬 | 2024

《인생의 역사: ‘공무도하가’에서 ‘사랑의 발명’까지》 신형철 | 2022

《시와 산책》 한정원 | 2020



국외 문학

## 각본 없음

: 삶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쓴 것들

아비 모건 지음 | 이유림 옮김  
현암사 | 2024

“제이콥은 진짜 춤을 취요.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가, 한 바퀴 돌게 하고, 편안하게 풀어준 다음, 저를 웃게 해 줘요. 훌륭한 사람이예요.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영리한 사람이죠. 훌륭한 아빠, 훌륭한 파트너, 훌륭한 형, 훌륭한 아들, 훌륭한 친구예요.”(143쪽)

“우리는 정말 행운아야”라고 말할 수 있었던 평범하고도 화목한 일상이 갑자기 깨어졌을 때,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나 사용되던 비극이 갑작스레 자기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아비 모건은 “삶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글을 쓴다. 이 책은, 작품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인물의 서사를 전지전능하게 주물러왔던 극작가 아비 모건 자신의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기록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굳건했던 일상의 울타리가 하나씩 허물어진다. 연이어 찾아오는 끝 모를 재앙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믿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끝을 알 수 없는 각본 없는 현실이 막막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 작가가 보여준 삶의 단단한 의지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 📖 저자 소개

**아비 모건(Abi Morgan)** 영국의 유명 극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서프러제트>, <철의 여인>, <세임> 등의 영화는 물론이고 <더 스피릿>, <섹스 트래픽>, <디 아 위> 같은 영국의 유명 TV 프로그램을 작업했다. 2013년 제65회 에미상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위험을 향해 달리다: 기억과 대면한 기록들》 세라 폴리 | 2024

《아메리칸 서울: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헬레나 로 | 2023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된다: 휘청거리는 삶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 캐서린 메이 | 2022



인문예술

## 전시디자인, 미술의 발견 : 작품은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가

김용주 지음  
소동 | 2023

“관람자는 공간이 미리 확정한 질서와 자신의 자유로운 동선 사이에서 예정과 조우가 엇갈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길을 따라 가거나 스스로 길을 찾고 방황하며 하릴없이 거닐고 우연에도 이끌리며 그 사이사이에서 조각들을 만난다.”(94쪽)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하고 위대한 조각작품이 예상치 못한,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면 작품의 아름다움을 쉽사리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대상은 주변 공간에서 맥락을 부여받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미술관의 전시장은 의도적으로 이 현상을 극대화한 공간으로서,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디자인된다.

저자 김용주는 20여 년 동안 전시 공간 디자이너로서 일했던 경험을 모아 책 한 권으로 풀어냈다. 작품과 전시의 취지를 읽어낸 과정뿐 아니라 관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끔 유도하였는지 알고 나면 전시가 다시 보인다. 저자가 겪은 고민의 흔적은 전시 공간 도면과 콘셉트 노트로 생생하게 전해진다. 전시 공간을 작가의 삶, 영혼과 관객이 깊이 교감할 수 있는 통로로서 구성하기도 하고, 건축 도면과 같이 ‘문서’였던 것마저 ‘작품’으로 승화하도록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난관을 극복하고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경험뿐 아니라, 기획안이 좌절된 경험까지 솔직하게 밝혔다.

### 📖 저자 소개

**김용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운영 및 디자인 기획관으로 재직 중이며, 미술관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반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다. ‘제16회 베네치아 건축비엔날레’ 한국관 공간 연출,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다수의 기획전을 담당했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큐레이팅을 말하다》 송미숙 외 | 2019

《공간 디자이너는 어떻게 일할까?: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인 스튜디오 15》

CSLV EDITION | 2022

《그림이 더 잘 보이는 미술관 이야기》 이소영 | 2024



인문예술

## 출근길 심리학

: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을 위한 33가지 마음의 법칙

반유화 지음  
다산초당 | 2024

“무례함에, 이기심에, 무심함에 무력하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으로부터 나를 잘 지켜낼 수 있다.”(82쪽)

당신의 출근길은 행복한가. 일에, 사람에 치이는 반복되는 일상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만 싶지는 않은가. 이러한 직장인들이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여기 있다.

심리학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종의 ‘무기’라고 말하는 저자는, 불안한 직장인이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한 서른세 편의 심리학 활용법을 세 장으로 나눠 소개한다. 첫째 장에서는 내안의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방법에 관해, 둘째 장에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법을 터득하는 방법에 관해, 마지막 장에서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마음가짐에 관해 이야기한다. 번아웃, 분노, 감정노동 등 주제별로 상황에 맞는 사례와 심리학 실험을 더해 이해를 돕는다. 수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일터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불편함을 온전히 바라보면서도 자기 삶을 단단히 지켜내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 📖 저자 소개

**반유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년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에서 어려움에 부딪친 이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전해 왔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당신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특하면 화가 나는 당신을 위한 분노 처방전》

총페이츄 | 2024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고정 관념을 깨는 35가지 심리 법칙》 이민규 | 2023

《말의 진심(큰글자책)》 최정우 | 2023





사회과학

유튜브 백과

: 세계의 연결자, 최고의 미디어가 된 빅테크 플랫폼

김남훈 지음  
이은복 | 2024

“처음엔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청 시작 이후에는 몰입해 지속적 시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1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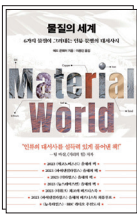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꼽는다면 아마도 유튜브가 아닐까? 《유튜브 백과》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 책으로, 유튜브를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로 바라보게 한다. 미디어 전문가 김남훈은 이 책에서 유튜브의 역사와 성장 과정, 다양한 콘텐츠와 성공 사례, 그리고 채널 운영의 전략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수익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유튜브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 채택한 다양한 전략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소개하고 있어 유튜브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다.

👤 저자 소개

**김남훈**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기자로 활동하다가 유튜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길로 들어섰다. 그의 채널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현재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불변의 법칙: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모건 하우절 | 2024
- 《돈 버는 유튜브 AI 크리에이터》 이종석·김형우 | 2024
- 《된다! 김메주의 유튜브 채널&영상 만들기》 김혜주 | 2024



사회과학

물질의 세계

: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

에드 콘웨이 지음 | 이종인 옮김  
인플루엔셜 | 2024

“여섯 가지 물질은 아직 칭송받지 못한 현대 사회의 영웅들이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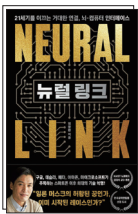
물질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보잘 것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모래에서 비롯된 반도체가 없다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리와 리튬, 철이 없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세계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문명을 형성하고 역사를 바꾼 인류 진보의 역사를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의 6가지 물질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대체 불가능한 광물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문학과 경제, 역사와 과학의 영역을 넘나들며 흥미롭게 담아내고 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있는 독자라면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해 온 매력적인 물질의 세계를 통해 새롭게 그려나갈 미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에드 콘웨이(Ed Conway)** <더타임스>, <선데이타임스>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영국 스카이그룹에서 운영하는 24시간 뉴스 채널 ‘스카이뉴스’의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다수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충, 군, 쇠: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 재레드 다이아몬드 | 2023
- 《코스모스》 칼 에드워드 세이건 | 2006
-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 2023



자연과학

뉴럴 링크

: 21세기를 이끄는 거대한 연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창환 지음  
동아시아 | 2024

“모든 컴퓨터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도 자연스럽게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로 진화할 것이다.”(197쪽)

생각만으로 컴퓨터 화면의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다. 현실에서도 가능하다. 뉴럴 링크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고 뇌파를 읽어 외부 기계와 연결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공학 스타트업의 이름이기도 하다. 뉴럴 링크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기술을 통해,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저자는 BCI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뉴럴 링크’라는 제목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뉴럴 링크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BCI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한다. 또한 영화 속 뇌과학 기술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설명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뇌파를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 BCI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다양해진다. 그러기에 이미 상용화된 뇌파 기반 명상 기기인 ‘뮤즈’부터 잠재적인 응용 분야까지 확인할 수 있다. BCI가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면, 이 책이 그에 대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임창환**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공학 관련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의공학 분야의 경력을 쌓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천 개의 뇌: 뇌의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인류와 기계 지능의 미래》  
제프 호킨스 | 2022
- 《더 커밍 웨이브: 딥마인드의 창조자가 말하는 AI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  
무스타파 술레이만 | 2024
-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뇌가 당신에 관해 말할 수 있는 7과 1/2가지 진실》  
리사 펠드먼 배럿 | 2021



자연과학

해파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세월의 무게를 덜어 주는 경이로운 노화 과학

니콜라스 브렌보르 지음 | 배동근 옮김  
북트리거 | 2024

“다시 한번 우리는 노화라는 인류 공통의 적을 희망찬 것으로 바꿀 기회를 맞았다. 인종, 국적, 성별, 재산의 유무,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늙는다. 노화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 말은 노화에 관한 한 어떠한 발전도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292쪽)

꾸준히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산다. 영원을 꿈꾸고 있으니 이를 방해하는 노화라는 이름의 변화를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문득 곁에 다가와 있는 늙음이 새삼스레 신경 쓰이는 요즘이라면, 자연과 과학이 들려주는 조언의 위로를 들을 때다.

이 책은 “이 거대한 자연계에서 과연 늙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낯설 벌거숭이두더지쥐를 소개하며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후로도 좀비 세포라 불리는 노화 세포, 노화 유발 바이러스 등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소재를 가볍게 다루며 노화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몸과 마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도록 과학자 특유의 근거 있는 충고를 전해 온다. 노화를 늦추길 원하는 많은 이들의 소망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건강한 삶의 여정을 새로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 여정을, 주변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시간으로 채워나갈 기회다. 📖

👤 저자 소개

**니콜라스 브렌보르(Nicklas Brendborg)** 코펜하겐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국제 인재 프로그램의 젊은 과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노화의 역행: 노화를 거스르는 최신 노화과학 활용법》 베스 베넷 | 2023
-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은 젊게》  
정희원 | 2023
- 《가장 큰 걱정: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 2023





## “AI 시대에도 국가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2024년 6월, 오랫동안 공석이던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 임명됐다. 42대 김희섭 관장은 디지털 혁신과 융·복합 인재 양성에 매진하며 꾸준히 디지털 도서관과 정보처리 분야를 연구해 왔다.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서관의 수장으로서 AI 시대 도서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으로 부임한 김희섭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도서관정보학을 전공하고 1989년 졸업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영국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1989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약 13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연구소 생활을 6년 정도 하다가 영국 유학을 결심했는데, 이유는 그 당사가 인터넷이 활발히 보급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연구원으로서 도서관에 인터넷을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지 궁금했고,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도서관에 관심이 생겨서 영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제가 영국에서 가고자 했던 학교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인 곳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석이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님으로 오시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서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제 인생에서 크나큰 영광이자 설렘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만큼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기대치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것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관장으로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데, 이제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때, 여전히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며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 혹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관장으로서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 있다면요?**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데이터센터가 되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데이터로 만들어 AI 연구자와 관련 기업들에게 기반 데이터로 제공한다면, 관련 연구와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식자원의 보고’에서 ‘데이터의 보고’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대표 도서관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사서라는 전문성(Professionalism)



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도서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며,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역량을 갖춘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 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수로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가르침을 이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서 학부생들에게는 정보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정보 검색,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정보학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분야의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정보 아키텍처, 디지털 아카이빙, 정보공학 등 심화된 과목들을 가르쳤고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최신 연구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질적인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미래의 연구자로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 AI 시대에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서관은 기계가 공부할 수 있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념, 윤리적 문제, 실용적 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데이터세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AI 학습 허브 설치도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와 더불어 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AI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메이커스페이스와 혁신 연구실을 제공해 창의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의 역사와 진화를 문서화해 연구와 발전 과정을 보존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는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도서관 수준에 달려 있다”고 말

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는 책 없이는 살 수 없다(I cannot live without books)”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문명의 기초로 보았고, 지식과 교육의 확산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의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지성, 그리고 도덕적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식과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중요한 도서관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만남: 이어령 강인숙 부부의 70년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어령 선생님의 아내이자 영인문학관 관장이신 강인숙 여사님의 글입니다. 부부로서 한평생을 함께하셔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칫 본인의 글이 이어령 선생님을 미화하거나 영웅화한 글로 독자들에게 비칠세라 노심초사하시는 심경을 밝힌 것을 보고,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더 집중하고 곱씹으며 읽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격려는 도서관이 발전하고 더욱 알차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도서관》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❶

김희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기술원을 거쳐 경북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한글 정보검색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으며, 정보공학 전문가로서 디지털 도서관과 정보처리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이외에도 국가기록관리표준위원회 위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문헌정보(TC46) 기술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록관리 표준화와 선진화에 힘썼다.



도서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며,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역량을 갖춘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 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커다란 카페를 연상시키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부

## 이 도시가 도서관을 여행지로 만드는 법 전주 도서관 여행

전주 하면 한옥마을이나 비빔밥부터 떠오르겠지만, 사실 전주는 전국의 독서 여행자와 책 애호가에게 사랑받는 ‘책의 도시’다. 시내 곳곳에 다양한 테마와 볼거리를 갖춘 특화도서관이 운영되고, 이색적인 분위기의 독립 서점과 북 카페가 준비하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전주의 책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 도서관 여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 전설 사진 안호성

### 뿌리 깊은 책의 도시 전주

전주는 유독 책과 관련한 역사가 깊다. 그 시작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왕조는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고 4대 사고(춘추관, 성주사고, 충주사고, 전주사고)에 봉안해 두었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전주사고를 제외한 세 곳의 사고에 있던 실록이 소실된다. 전주사고에 남은 실록마저 위기에 처하자 선비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을 주축으로 ‘실록 수호대’가 소집되었고, 필사의 사수 작전 끝에 전란 속에서 마지막 실록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전주시 도서관산업과 도서관여행팀의 이효정 주무관은 이런 전주의 역사성이 현대로 계승되어 여러 도서관 특화사업의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전주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도시이자 완판본(조선 후기 전주에 설치됐던 전라감영에서 출판된 소설 등의 옛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으로 조선의 출판 산업을 이끈 출판과 기록 문화의 도시입니다. 이런 고유한 역사성은 현대로 계승되어 전주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전주는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2021년 6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출판·기록 문화의 중

심 도시에 걸맞은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책 문화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먼저 도서관은 정적이고 조용한 장소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삼천도서관을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개방형 창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해 재개관했다. 뒤이어 제각기 다른 콘셉트와 테마로 무장한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 공작소,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등 특화도서관 다섯 곳이 릴레이로 개관했다.

시내 구석구석에 색다른 작은 도서관이 징검다리처럼 생기는 동안, 신축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도 시민과 여행자의 발길이 몰리기 시작했다. 전북 지역 시립도서관 중 최초의 열람실이 없는 개방형 도서관인 꽃심은 입장과 동시에 도서관은 조용한 공간이라는 편견을 부순다. 층고가 높은 내부는 칸막이나 벽 없이 탁 트여 있고, 이따금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소리가 들려와 도서관이 아니라 대형 카페에 들어온 느낌이다.

“꽃심은 전주 출신 작가 고(故) 최명희 선생님의 대표작인 《흔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새싹을 틔울 만큼 강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꽃의 힘’을 뜻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경직된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 모두 눈치보지 않는 ‘책 놀이터’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3층의 ‘우주로1216’는 도서관의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12~16세만 입장 가능한데요. 12세부터 16세가 스스로 운영하는 콘셉트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우주로1216’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전주 시민분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온 여행자분들도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시민의 사랑’ 책장은 방문객이 기증한 도서로 채워진다.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 이용 시간

· 화~금요일 : 오전 9시~오후 10시  
· 토·일요일 :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중화산동)

전화번호 063-230-1829

#### 전주 도서관 여행

신청 방법 매월 1일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에서 신청 가능





무척 좋아하세요. 현재는 여러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도 찾아오는 인기 견학지가 되었습니다.”

꽃심을 비롯해 이토록 볼거리 풍부한 도서관이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도서관과 도서관을 잇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여행 코스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전국 최초의 도서관 콘텐츠로 만들어진 여행 프로그램 ‘전주 도서관 여행’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 도서관이 여행지가 된다면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다. 전주의 특화도서관 7개관, 시립도서관 2개관, 복합문화시설 4곳으로 구성된 코스를 전문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다. 코스의 종류는 하루 동안 전주의 도서관을 돌아보고 전주 한지 체험 등을 경험하는 ‘하루 코스’와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테마(이야기그림책·비밀·정원)를 선택할 수 있는 ‘반일 코스’로 나뉜다. 매주 토요일마다 총 3회(하루 코스 1회/반일 코스 2회)



도서관 여행 해설사의 가이드를 따라 팔복예술공장을 둘러보는 여행자들  
©전주시청



숲속에 위치한 특화 도서관, 학산 숲속 시립도서관 전경 ©전주시청

전·오후 총 2회) 운영되며, 회당 참여 인원은 15명 이내다. 도서관 여행 전용 버스를 타고 이동해 두박이 여행자도 쾌적하고 여유롭게 시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매월 1일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진행되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이 포함된 여행 코스는 있어도, 도서관만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전주가 최초였어요. 선례가 없었기에 2021년 10월 시범 운영을 앞두고 ‘도서관이 여행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죠. 사전 예약을 한 달 전에 오픈한 것도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책과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새삼 놀랐죠.”

‘전주 도서관 여행’은 시범 운영 2개월 만에 229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1,555명, 2023년에는 1,799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인기몰이 중이다. 전체 참여 인원의 45%는 다른 지역 여행자로, 정적인 공간의 대명사인 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2022년부터 기관 대상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20개 기관, 2,028명의 관계자가 전주의 도서관을 찾았다.

“교육·기획·건축 등 여러 기관의 담당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분야는 다르지만 좋게 봐주시는 포인트는 비슷한 거 같아요. 기관 대상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관계자가 도서관 여행 해설사의 열정적인 해설과 프로그램에 반해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도서관이 축제가 되는 도시

전주시는 도서관이 도시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여행하기 좋고, 책 읽기에도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해 야간 코스를 신설했다. 9월 마지막 주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 도서관의 아름다운 야경과 선선한 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야간 코스를 총 10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위케이션(여행지에서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을 도서관 여행에 결합한 ‘전주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위케이션 여행은 전주 한옥마을 내 숙소와 함께 인근의 동문헌책도서관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한옥마을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위케이션 공간을 제공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하이라이트 공간 우주로1216.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즐기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쿵쿵존(우)이 마련돼 있다.

하는 프로그램이다. 업무에 필요한 스캔, 인쇄 등의 서비스도 지원하며 전주의 곳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카페, 동네 책방, 공방 체험 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전주에는 3대 책 축제가 있습니다. 봄에 열리는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여름에 열리는 독립 출판 북 페어인 ‘전주책페’, 그리고 가을에 열리는 가장 큰 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인데요. 이런 책 축제와 도서관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 중

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 운영하였는데요. 특수학교 교사 출신 도서관 여행 해설사 선생님이 전담해서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아주 많이 기뻐하셨죠.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획보다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 담기 힘들 만큼 다양한 도서관 및 책 문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책에 얹힌 역사가 곧 정체성이 된 ‘책의 도시’에서는 또 어떤 여행이 시작될지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진다. ❷



### 전주시 도서관산업과 도서관여행팀 이효정 주무관

“전주의 도서관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운치 있지만,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학산 숲속 시립도서관을 추천하고 싶어요. 학산 종턱 숲속에 있는 도서관으로 온갖 시집을 읽을 수 있고, 거기에 ‘만내제’라는 호수도 있어요. 도서관 통창으로 호수를 바라보면 온갖 걱정거리가 씻기면서 마음이 정화됩니다. 시 한 편 읽으면서 잔잔한 호수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나폴리 국립도서관 (Biblioteca Nazionale di Napoli)과 종이의 기원, 파피루스



나폴리만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자연의 축복이 감도는 해안 도시. 로마 황제들이 가장 사랑했던 나폴리는 오늘날 호주 시드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항(美港)으로 불린다. 섬과 채움, 사색과 산책이 있는 나폴리에서 조금 더 깊은 명상과 몰입에 잠기고 싶다면 찾아야 할 곳이 있다. 오래된 램프가 잔잔히 빛나고 장엄한 신전을 조용히 거닐 수 있는 곳. 종이의 기원 파피루스 두루마리와 예술가의 은밀한 서신이 펼쳐지는 곳. 나폴리 국립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di Napoli)이다.

글 김윤아(《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사진 위키피디아



나폴리 국립도서관 내부 ©Shutterstock

나폴리 왕궁은 나폴리의 중심지 플레비시토 광장에 있다. 박물관, 극장, 왕실 예배당과 정원과 식물원이 갖춰진 왕궁의 한 축에 나폴리 국립도서관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로마 국립도서관, 피렌체 국립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장서 규모를 자랑한다. 200만 점에 달하는 작품과 3만 점이 넘는 필사본, 그리고 4,500권에 달하는 인큐네볼러(15세기 후반 서양에서 인쇄된 서적)와 1,800권에 이르는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Herculaneum Papyri, 베수비오산 화산 폭발로 사라진 고대 로마의 도시 헤르쿨라네움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와 같은 거대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부르봉왕조 페르디난트 4세(Ferdinand IV)의 칙령에 따라 18세기 후반 설립됐다. 카포디몬테 왕궁에서 현재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 궁전(Palazzo degli Studi)으로 왕실 도서관의 컬렉션을 옮기는 작업에서 출발했다. 방대한 작품들이 정리되고 분류된 후 1804년 당대 저명한 인문학자 후안 안드레스(Juan Andrés)의 지휘로 나폴리 도서관(Reale Biblioteca di Napoli)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첫 문을 열었다. 이후 1816년 왕립 도서관(Reale Biblioteca Borbonica)으로 이름이 바뀌며 종교 단체와 귀족들로부터 각종 소장품을 인도받았고, 1860년 이탈리아 통일 후 국립도서관(Biblioteca Nazionale)으로 명명하였다.

## 왕실 도서관의 명맥을 잇다

한 국가나 왕실의 이름을 가진 도서관은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다. 나폴리 국립도서관은 1910년에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를 보존하던 공간과 통합하며 세계적인 유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1920년대에는 로알 펠리스의 부속 건물로 이동하며 그 명맥을 탄탄히 이어갔다. 유산과 보물을 보존하는 공간에 대한 위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못지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도서관 본부를 왕궁 내부로 옮기며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화재의 위기에 처한 희귀본과 고서를 모두 대피시켰다. 한층 보안을 강화한 뒤 1945년 대중에게 다시 도서관의 문을 개방했으나, 1980년 대지진으로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자 바다를 향해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재정비를 했다. 작품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현재에 이르는 도서관에는, 왕궁의 유산은 물론 주세페 비아니 등 나폴리를 대표하는 작가와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나폴리 전시관'을 조성해 왕국, 귀족, 도시, 건물과 지형을 비롯해 베수비오산 화산 폭발 등 나폴리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 또한 선명히 기록하고 있다.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를 펼친 모습(출처: 베수비오 챌린지 홈페이지 캡처)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 화산 폭발로 진흙 등이 뒤덮여 딱딱하게 굳었다.

###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도서관 내부

도서관 내부에는 호두나무 선반 아래로 신고전주의 시대의 가구들이 놓여 있고, 폼페이 스타일의 장식과 꽃과 천사를 모티브로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장식이 곳곳에 있다. 왕궁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16세기 고서적만 5만 권에 달하고, 인큐네불러는 4,500여 권, 파피루스는 1,800권에 이른다. 명실상부 종이의 기원, 기록의 역사관이라 불릴 만하다. 파피루스 식물의 줄기로 만든 파피루스는 영어 단어 ‘Paper’의 어원으로, 서면 형태의 가장 오래된 기록매체를 가리킨다. 주로 고대 시대의 법률, 신학, 예술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파피루스는 그 자체로 유물과 역사, 문학과 미학의 다큐멘터리이다.

### 인류의 기원을 읽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는 화산 폭발로 묻혀 있던 고대 도시 헤르쿨라네움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서 발견한 작품으로, 1910년 나폴리 국립도서관에 인도됐다. 무려 1,500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작품의 존재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했고, 지금까지 발표된 작품 중 상당수는 고대 그리스 에피쿠로스주의 철학자인 가다라 출신의 필로데무스(Philodemus)가 쓴 작품 모음집으로 밝혀졌다.

숫보다 검고 돌처럼 굳은 파피루스를 손상되지 않게 펼치고 읽는 작업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며칠,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파피루스의 평균 길이는 10m에 이르고, 일부는 20m가 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각난 파피루스를 해석하는 데는 수학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학자들의 설명이다. 원주와 두께로 전체 두루마리의 길이를 계산하고, 중앙을 향한 각 원주의 크기를 맞춰감으로써 글씨 조각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파피루스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나폴리 국립도서관은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에서 새로 세네카 대체(Seneca the Elder)의 역사서가 발견되었다고<sup>1</sup> 발표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와 티베리우스 시대의 초기 수십 년이 기록된 내용을 알리며, 파피루스의 잔해를 끈기 있게 해석하고 분석해 갈 것임을 피력했다.

도서관은 수많은 서명본과 서신을 보존하고 있다.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토르콰토 타소, 살바토르 로사, 반비텔리, 잠바티스타 비코와 같은 유명한 인물의 서명본들이 있고, 특히 시인 자코모 레오파르디가 사인을 남긴 《Canti》 및 《Operette Morali》, 《Zibaldone》를 비롯해, 1824년 12월 22일 레오파르디가 그의 사촌 주세페에게 보낸 편지도 소장하고 있다.<sup>2</sup> 예술 작품의 탄생 배경과 비화가 적힌 편지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도서관은 레오파르디가 친척, 친구들과 주고받은 다수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가장 흥미로운 내용으로 레오파르디의 작업실과 관련된 자료를 꼽았다. 예술가의 글쓰기 배경과 진화를 기록한 내용은 작품의 생생한 각주이고, 친밀한 해설이 되는 셈이다.

<sup>1</sup> <https://www.finestresullarte.info/en/news/discovered-by-a-researcher-the-historiae-of-seneca-the-elder>

<sup>2</sup> <https://www.finarte.it/2020/11/il-direttore-della-biblioteca-nazionale-di-napoli-ci-racconta-della-lettera-di-giacomo-leopardi>

### 쉽표로 긴 문장을 읽다

도서관은 최신 트렌드보다 클래식을 지향한다. 소장품은 모두 긴 시간을 들여 감상해야 하고, 편리한 공간이나 최신의 서비스가 아닌 고대 자료 목록을 해설하고, 깊이 있는 독서 문화를 제안한다. 올 상반기에는 돌봄, 의학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를 위한 과정보도 넓혀가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가적 프로그램 ‘Born to read’를 통해<sup>3</sup> 아이들의 인지적·정서적·관계적·사회적 발달과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이 종이의 냄새를 맡고, 책을 만지고, 고대 텍스트의 정교함과 과학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주말 이야기 시간’ 등 풍부한 활동을 기획한다. 다양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약을 기반으로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교과 과목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이나 인턴십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도서관은 이탈리아 문화부의 주도로 현재 위치에서 다른 건물로 이전될 상황에 놓였으나 시민과 학자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며 이전이 무산됐다. 왕궁에서 유료 행사를 확대하여 수익을 도모하려는 과정에서 도서관 소장품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도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국립도서관이 있는 이유는 수익 창출이 아닌 문화의 구심점이라며, 도서관의 ‘위치’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도서관은 오늘날도 왕궁의 한쪽을 지키고 있다. 나폴리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견고하고 담담하게.

<sup>3</sup> <https://www.napolike.com/biblioteca-nazionale-di-napoli-nuovo-punto-lettura-per-bambini>



자코모 레오파르디의 초상화

거닐고 쉬기에 최적의 도시 나폴리에서, 깊은 명상과 몰입을 위한다면 단연 도서관이다. 화산재에서 건져 올린 종이의 기원, 작품 너머 예술의 사적인 고백을 읽을 수 있는 곳.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나폴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정원과 식물원으로 연결되는 완벽한 산책로로 이어진다. 몰입이 심을 넘어 깊은 차원의 경험이자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의 시간이라면, 이보다 완벽한 휴양지가 있을까. **㉮**

### 나폴리국립도서관은?

도서관명	나폴리 국립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di Napoli)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주소	Piazza del Plebiscito, 1 80132 Napoli NA, Italia
홈페이지	<a href="http://www.bnnonline.it/it/1/home">www.bnnonline.it/it/1/home</a>

김윤아 • 《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취리히 등에서 40여 곳의 서점을 탐방했고, 가장 인상적인 10여 곳에서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다수의 매거진에 책과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에서 ‘일상에서 영감찾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폴리 국립도서관 전경 ©Shutterstock



## 도서관에서 문해력 키우기

요즘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마음 깊이 사과한다는 의미의 ‘심심(甚深)한 사과’를 ‘지루한’이라는 동음이의어로 오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독서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단어의 뜻이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에서는 문해력 문제를 인지하고,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지옥(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 사진 각 도서관



### 독서 습관 만들기, 문해력 증진의 시작

문해력 저하의 원인은 독서 습관의 부재 때문일 수 있다. 이에 각 도서관에서는 아침 독서나 함께 읽기의 형태로 독서 습관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책 읽는 서울, 북웨이브(BookWave)’ 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책을 매개로 독서 및 토론, 쓰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안양시 비산중학교 도서관은 매일 아침 독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북모닝 미래in 아침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아침 20분간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독서 활동을 하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와 올바른 독서 습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전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3주 1권 완독 챌린지인 ‘북모닝 북나잇’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가 매일 30분 독서 후 타임스탬프 앱을 활용하여 독서를 인증하고, 감상평을 업로드하면 수료하는 형태이다. 독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 습관 형성 및 문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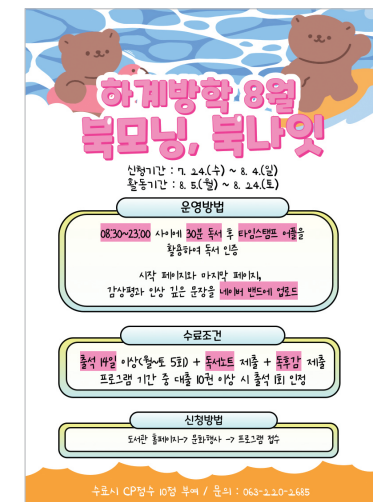
독서 습관 형성은 문해력 증진의 시작점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 습관 형성 프로그램은 학생들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며, 아이와 함께, 사제 동행 책 읽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산중학교 도서관의 아침 독서 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 학교 북웨이브(BookWave)' 리플릿



전주대학교 도서관의 '북모닝, 북나잇'

### 도서관 속 문해력 교실

문해력이 이슈가 되는 요즘 도서관에서는 문해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서는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 소설책, 교과 연계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함께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동구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의 문해력 저하 해소를 위해 ‘문해력 in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아·초등생들에게 문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참여자는 SNS를 통해 독후 감상을 인증하면 된다. 또한 초등 교과 연계 도서를 안내하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담당 사서가 직접 문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도서, 교과 연계 도서를 선정하여 문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 중랑구립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해력'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 동안 운영했다. 어린이·청소년의 문해력만큼이나 성인의 문해력도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며,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학작품(단편소설, 시, 에세이) 및 신문 기사를 연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문해력에 초점을 맞춘 도서관 프로그램은 글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상이나 짧은 글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문학·비문학 등 다양한 글을 읽어보고, 상세한 내용의 이해를 돕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문해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비판적 사고력이 함양되는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시대인 만큼 미디어 문해력의 중요성도 더욱 중요해졌다. 도서관에서 독서를 통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다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인지 판별하는 능력도 중요시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마두도서관에서는 지난해 미디어 문해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문(뉴스)에 대해 이해하고, 가짜 뉴스를 선별하고 고쳐 쓰기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 문해력을 파악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문해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이 추진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 습관 형성 프로그램이나 문해력 교실, 미디어 문해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 많은 이들의 문해력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❶

이지옥 • 현재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

2024
문해력 in 도서관

## 문해력꾸러미 참여자 모집안내



**운영기간** 2024년 3월 ~ 9월  
**대상** 유아, 초등(자), 초등(고) 각 10명  
**내용** 배부받은 문해력 꾸러미 책(매월 5~10권씩, 1꾸러미))을 읽고 SNS에 독후감상 인증하기

**신청기간** 2024년 2월 6일 오전 10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대구동구도서관 > 독서문화행사 > 강좌/행사 참여신청 > 신청하기]  
**유의사항** 1. 반드시 참여자 본인이름으로 접수 (대리신청 불가)  
2. 신청연령 확인  
3. 대출 및 반납 기한을 제대로 지켜지 않을 시에는 참여제한  
4. 전년도 참여자는 신청불가




대구동구도서관의 '문해력 in 도서관'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 중학생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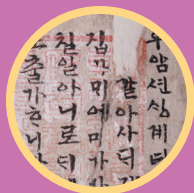
2023. 11. 4 ~ 25(토) 낮 2시~3시 50분

강의일정	교육안내
1차시 (11/4) -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 핵심 활동: 미디어 알기 쓰기	대상 고양시 중학교 (1~3학년) 15명 내외 일시 2023. 11. 4~25, 매주(토) 오후 2시~3시 50분
2차시 (11/11) - 제대로 읽기 - 미디어 콘텐츠 프로파일링	온라인 (Zoom) 수업
3차시 (11/18) -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 10문장으로 완성하는 논설문 쓰기	강사 박한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강사
4차시 (11/25) - 창의적으로 쓰기 - 캠페인(미디어 콘텐츠) 기획하기	신청 2023년 10월 14일 (토) 오전 10시~ 마감 시까지 - 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문의 031-8075-9066



마두도서관의 '중학생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 프로그램

- 34
문헌의 가치  
현대 인쇄본으로 처음 간행된 송시열의 여성 교훈서 《우암선생계여서》
- 38
문학상 읽기  
누가 진정한 인간일까?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 42
나를 바꾸는 독서  
삶의 형식으로서의 창조 리크 루빈의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
- 46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며 살펴본 '최근 3년간 예술 분야 인기 도서 분석'
- 48
똑똑한 독서 생활  
감각 너머를 상상하기 위한, 예술 서가 독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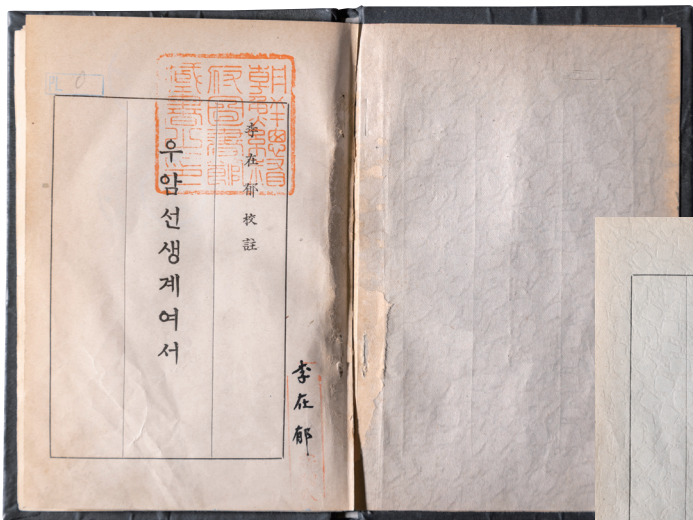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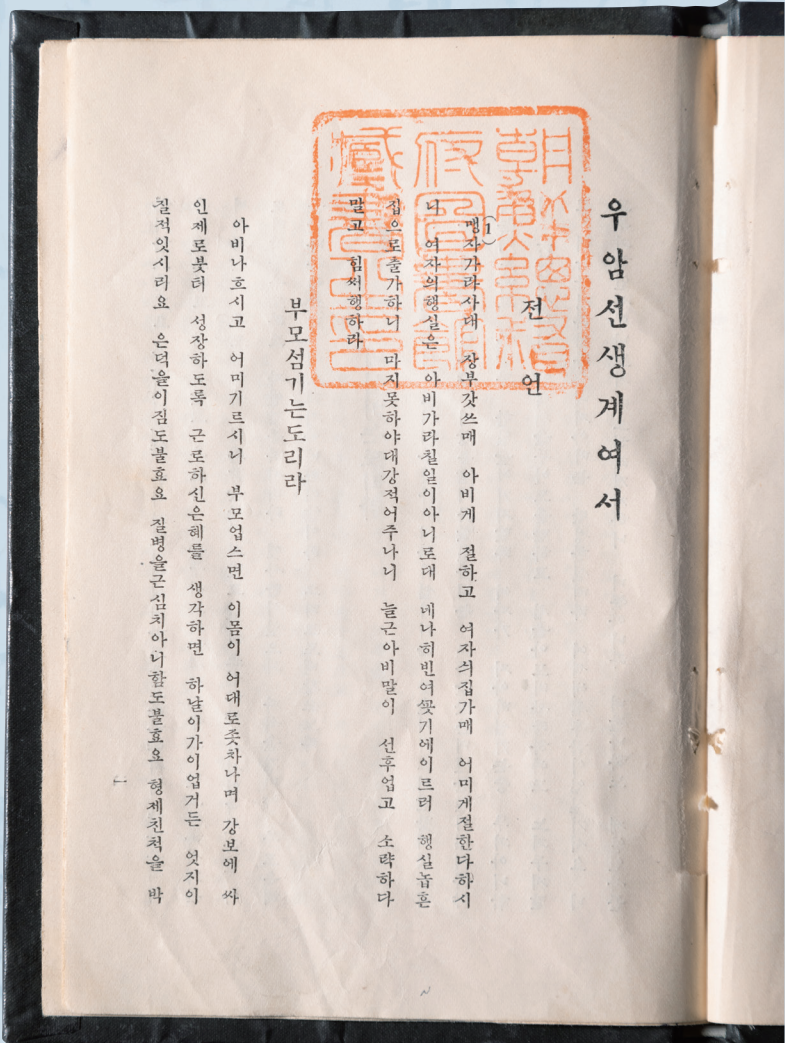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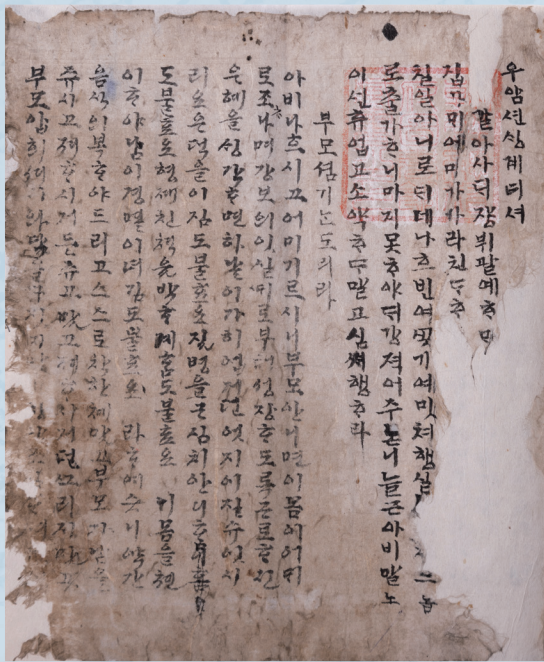
서재를  
견다



# 현대 인쇄본으로 처음 간행된 송시열의 여성 교훈서 《우암선생계여서》

이 책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권씨 가문에 출가하는 만딸을 위해 여자가 힘써 행해야 할 행실을 가르치기 위해 쓴 훈계서이다. 원래 제목은 ‘계녀서’이나 후대의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우암선생’을 추가한 것이다. 저작 연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암의 사위 권유(1625~1684)가 관례를 올린 해, 또는 그 이후에 우암의 만딸과 혼인을 했을 것이므로 1643년(인조 21)이나 그 이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 조혜린(고문헌과 과장)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1



2

- 1 《우암선생계여서》의 표제지. 표제지 우측 하단에 이재육이 기증했음을 표시하였다.
- 2 《우암선생계여서》의 표지(좌)와 판권기(우)
- 3 《우암선생계여서》의 원저자 송시열(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 4 1939년 《우암선생계여서》를 출판할 당시의 이재육

## 비장본, 세상으로 나온다

필자가 소개하는 이 《우암선생계여서》는 ‘尤庵先生戒女書’의 한글 표기로 ‘계녀서’가 아닌 ‘계여서’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편자라 할 수 있는 교주자(校註者) 이재육은 그동안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던 우암의 《계녀서》에 교열 및 주석을 덧붙여 단행본으로 발간했는데, 현대적인 인쇄본으로 처음 발간되어 판매된 책이었기에 우암의 《계녀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편자 이재육은 누구인가? 이재육(1905~1950)은 광복 후에 개관한 국립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1939년 2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조선총독부도서관 사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31년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으로 들어와 국문학, 민요학, 서지학, 도서관학(문헌정보학) 등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사서로서, 또 도서관 행정가로서 그 면모를 발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암선생계여서》는 복본(複本)을 합쳐 총 4책인데 모두 이재육이 기증한 것이며, 그가 사서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출간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이재육의 《우암선생계여서》가 출판에 이르는 과정은 ‘교주자의 말’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암 선생의 9세손 송병선 다편에 전해져 오던 《계녀서》를 송병선의 제자 손진번(호는 삼희재)이 발견하였고, 2) 1891년(고종 28)에 손

진번이 1차로 대강 필사한 후, 3) 1906년에 손진번이 재차 필사하여 맡머느리 이씨에게 전해 주었으며, 4) 1939년 손진번의 필사본에 이재육이 주석과 교열을 더하여 인쇄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손진번의 1차 필사는 ‘난초(亂草)’로 마구 베껴 쓴 초고였으며, 2차 필사에 이르러 정서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계녀서》는 손진번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비장본(秘藏本)으로, 다른 사람은 쉽게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육은 어떻게 다른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던 《계녀서》를 볼 수 있었을까? 교주자의 말에 따르면, 손호익이라는 인물이 래히 빌려주었다고 한다. 손호익은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으로 이재육과 같은 직장 동료였다. 따라서 위의 필사자 손진번의 아들인 그가 문중의 비장본을 동료인 이재육에게 흔쾌히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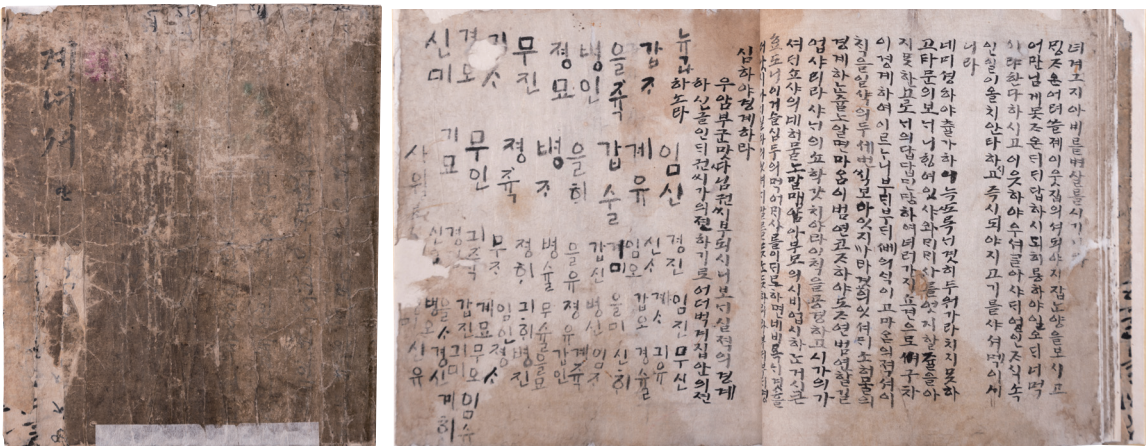


3



4





1941년에 구입한 《우암선생계녀서》. (순서대로) 표지, 마지막 면

### 말을 걱정하며 쓴 20가지 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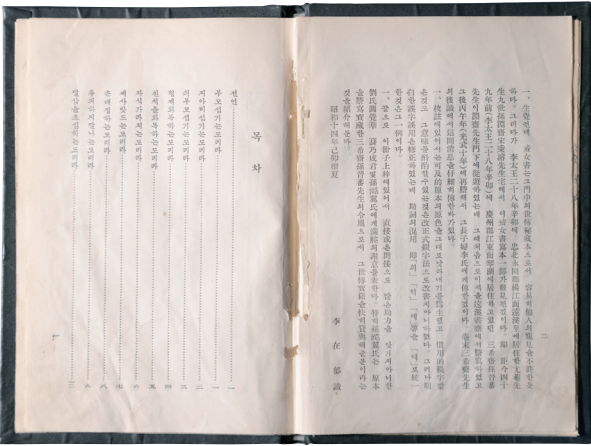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은 이재옥의 '교주자의 말'로 시작하여 전언, 본문 (20가지 도리), 발문과 필사자인 삼희재의 후지(後識),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옥의 주(註)로 이루어져 있다. 20가지 도리는 ▲부모 섬기는 도리 ▲시아비 섬기는 도리 ▲시부모 섬기는 도리 ▲형제 화목하는 도리 ▲친척을 화목하는 도리 ▲자식 가르치는 도리 ▲제사 받드는 도리 ▲손 대접하는 도리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 ▲재물을 존절히 쓰는 도리 ▲일 부지런히 하는 도리 ▲병환 모시는 도리 ▲의복 음식하는 도리 ▲노비 부리는 도리 ▲꾸이며 받는 도리 ▲팔고 사는 도리 ▲비수원(비손\*) 하는 도리 ▲중요로운 경계 ▲옛사람 착한 행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언과 발문은 송시열이 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면 슬하를 떠나 다른 가문에 시집가는 딸을 걱정하며 여러 가지 도리를 일러주기 위해 자세히 적어준 것으로, 남자의 《소학》에 비견하여 한 달에 두세 번씩 볼 정도로 명심하여 경계하라고 이르고 있다.

이재옥은 이 책에 대해 “구구절절이 폐부에서 토로된 것으로서 부성애의 범상치 아니하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거니와 또 일상 처신 전반에 대한 훈계와 주의를 대소 무루(無漏)히 인진(肅盡)하여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비단 부녀자뿐만 아니라 일반 인사의 처세상 참고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비손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일



《우암선생계녀서》의 목차

이 책은 1939년 9월 5일 대동인쇄소(大東印刷所)에서 인쇄하여 같은 해 9월 10일에 발행자 이재옥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가격은 실비 반포가로 30전(錢)을 책정하였고 사비로 출판하였다. 29쪽의 소책자로 19.0×13.0cm 크기에 불과하지만, 송시열의 《계녀서》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나아가 많은 사람이 연구할 수 있게 된 데는 이재옥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필사본으로 전해져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던 책이 현대적인 활자본으로 다량 인쇄되어 널리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46년에 정음사에서 다시 발간되는데, 56쪽의 소책자 형식이었다. ‘우암선생계여서’라고 표기한 1939년 발행본과는 달리 ‘우암선생계녀서’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최초의 활자본으로서 가치를 지닌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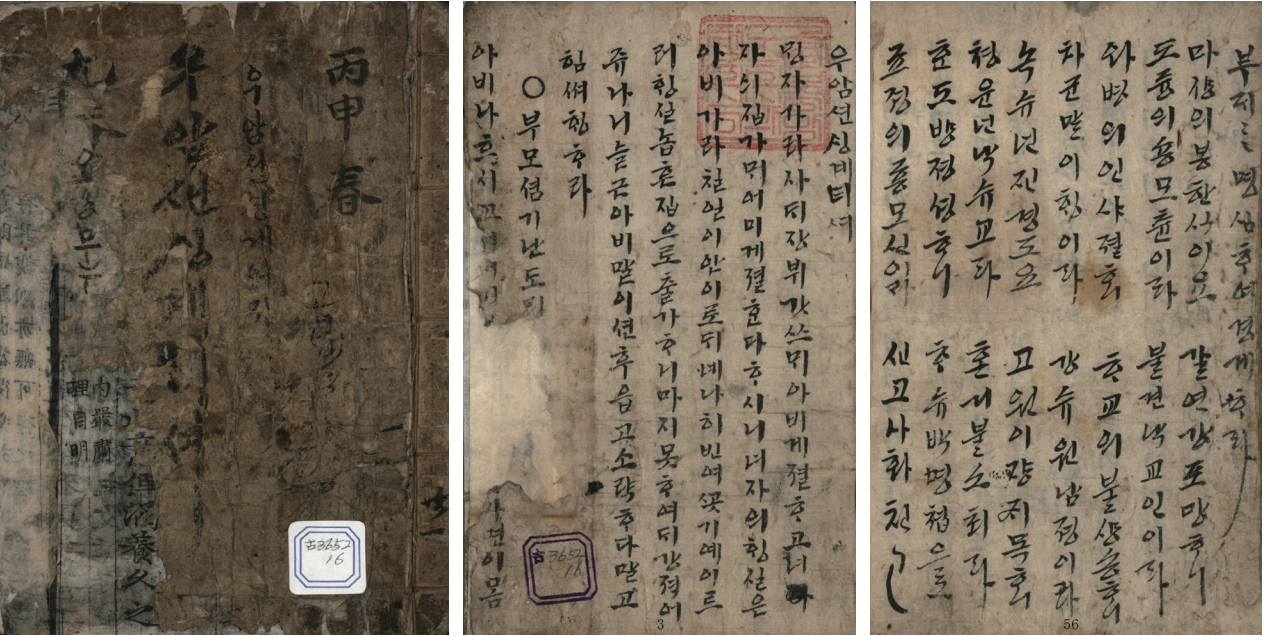
한편, 《계녀서》는 미묘하게 다른 몇 가지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은 2종인데, 이재옥이 인쇄본 출간에 참고한 자료와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옥이 대어한 필사본은 손씨 문중의 비장본으로 필사자인 손진번의 후지가 기록되어 있으나 두 필사본에는 삼희재의 후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두 필사본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우암선생계녀서》(청구기호 한古朝 25-39)는 15장으로 이루어진 한글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고에 보존되어 있다. 정확한 필사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41년 8월 5일에 구입(2圓(원) 50錢(전))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1941년 8월 이전에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23.2×21.4cm 크기로, 표지에는 한글로 ‘우암선생계녀서’, 한자로 ‘尤庵先生戒女書’로 표기되어 있다. 마지막 면에 “우암부군의 만파님 권씨 부 되시니 보내실 적에 경계하신 글인데, 권씨 가에 전하기로 얻어 베껴 집안에 전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권씨 문중에 전해 내려오는 《계녀서》를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우암선생계녀서》(청구기호 古3652-16)는 25장으로 이루어진 한글 필사본이다. 1996년에 구입한 것(6만 5,700원)으로, 병신년 1월 17일에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필사 연대는 알 수 없다. 앞의 자료와 크기가 약간 다른 25.0×18.7cm짜리 서책이다. 한자 서명은 동일한 ‘尤庵先生戒女書’로 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송현택(松峴宅)’이라는 장서기(藏書記)가 보인다.

두 필사본과 이재옥의 《우암선생계여서》 모두 기본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필사가 소개하는 이재옥의 《우암선생계여서》는 송시열의 〈계녀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최초의 인쇄본이며, 동시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책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❶



1996년에 구입한 《우암선생계녀서》. (순서대로) 표지, 본문 첫 면, 마지막 면



## 누가 진정한 인간일까?

### -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이 소설은 장기이식용 클론들을 다룬 디스토피아 SF소설이다. 하지만 과학의 미래나 인간 세상의 파멸을 그리기보다는 클론들의 삶과 관계를 통해 인간성에 대한 깊은 사유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누가 더 인간적인가? 클론인가, 인간인가?

글 황정산(시인·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위키피디아

인간 윤리에 대한  
통찰로서의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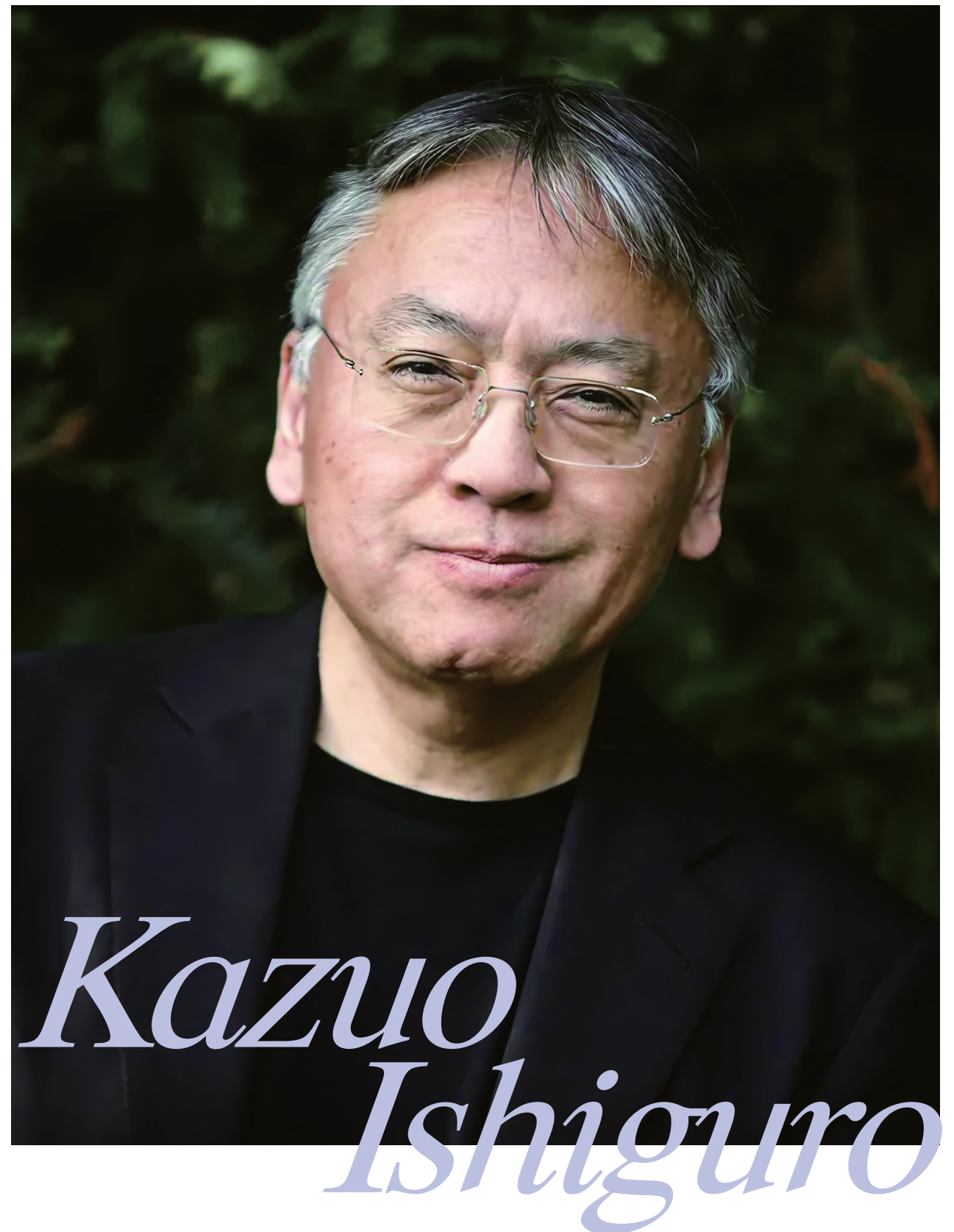
가즈오 이시구로는 201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영국 소설가이다. 이 책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는데, 다섯 살 때 가족 모두 영국으로 이주했다. 켄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1982년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 《창백한 언덕 풍경》으로 데뷔했다. 이 소설은 전후 일본 사회의 상처와 현대 일본 사회를 절묘하게 엮어내며 인간의 내면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1989년 쓴 《남아 있는 나날》로 부커상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이 작품은 영화로 제작됐는데,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연출하고 앤서니 홉킨스와 엠마 톰슨이 주연을 맡아 또 한 번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우리가 고아였을 때》를 발표해 맨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나를 보내지 마》(2005년)는 <타임>에서 '100대 영문소설'로 선정한 것은 물론, 전미도서협회 알렉스상, 독일 코리네상 등을 받았다.

그는 201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소설의 정서적 힘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고 그 환상적 감각 아래 묻힌 심연을 발굴해 온 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평단의 이런 평가처럼 그의 소설은 인간 내면의 깊은 심리와 사회현실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윤리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돌아보고 있다.



영화화 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포스터와 주연을 맡은 앤서니 홉킨스, 엠마 톰슨의 영화 속 한 장면 (출처: 배급사)





##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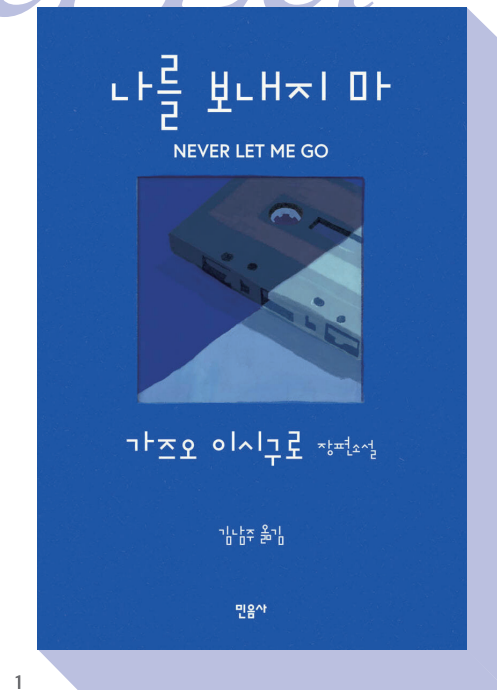
이 소설은 주인공 캐시의 회상으로 시작한다. 그가 교육받은 기숙학교 헤일섬에서 만난 토미, 그리고 루스와 있었던 이야기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헤일섬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술이었다. 개인적인 것이 금지되고 모든 삶이 통제된 이들에게 예술의 창조만이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소설이 2부로 접어들며 이들은 자신들이 장기기증을 위한 클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기증자가 되기 전 간병인의 과정을 거치는데, 사랑을 증명받으면 3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 그들은 학창 시절 자신들을 가르쳤던 마담을 찾아가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소문은 모두 헛소문이며 너희들은 모두 장기기증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예술이나 사랑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의 유한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클론으로 만들어져 장기기증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나 결국 언젠가는 죽는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클론들은 단순한 장기기증자로 곧 죽게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감정, 욕망, 인격을 발달시키고 그들의 인간성을 주장한다. 이 소설은 복제인간인 클론이 예술, 음악,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정해진 운명과 싸우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누가 더 인간적인가? 클론인가, 우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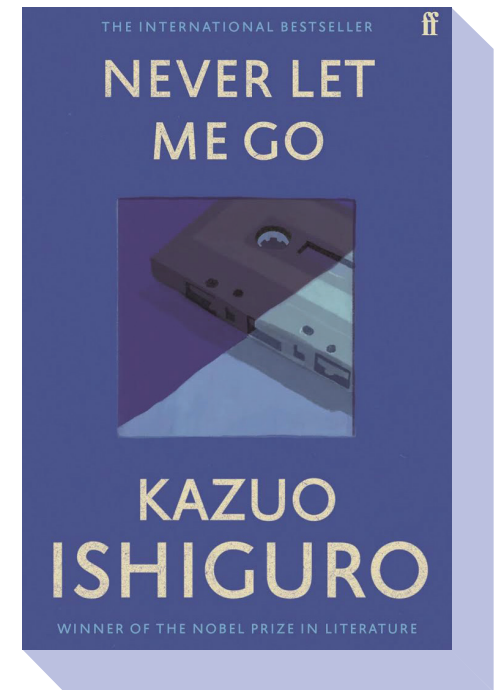
인류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집단을 희생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를  
묻고 있다.



Never Let



1



2

Me Go

## 어떤 사회가 윤리적인 사회일까?

가즈오 이시구로는 이 책을 통해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인간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또 다른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인류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집단을 희생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를 묻고 있다.

또한 윤리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클론들의 고통과 희생을 외면하는 루시 선생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합리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의 제도화된 모순과 불의에 맞서 그로 인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아닐까? ❶

### 황정산

1, 2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국영문 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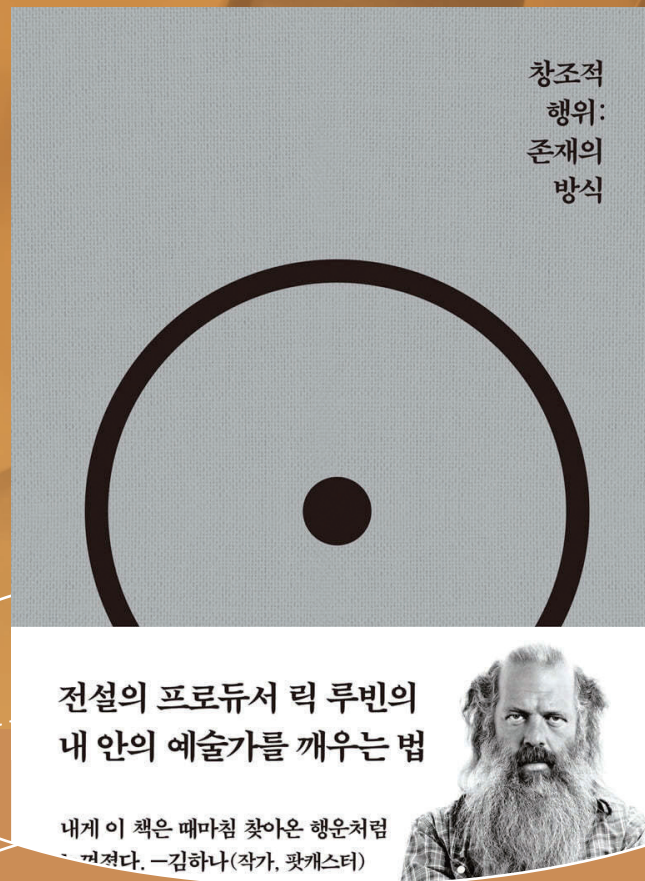
1993년 《창작과비평》에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정신과표현》에 시를 발표했고, 저서로는 《주변에서 글쓰기》,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소수자의 시 읽기》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상상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 삶의 형식으로서의 창조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갖고 있지만, 그 창조력을 일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배운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 때,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은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상시적으로 창조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 창조적 행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준다.

글 김건형(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주변의 외부 세계를 감각하고  
이를 해석하고 반응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변화하는 과정이  
모두 창조적인 것이다



## 창조적 행위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창조적인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이든 나름의 방식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창조'라는 다소 거창한 단어를 보면 흔히 위대한 예술가나 실리콘밸리의 특별한 천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라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어떨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현대인 모두의 과제다.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마다 마주했던 목표는 대개 이미 누군가 만들어둔 좋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사실상 시험으로 등급을 나눠야만 하는 한국 교육과정의 한계 때문에 타인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단계에 더 집중되곤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 자체가 창조적 행위라고 저자 릭 루빈은 책에서 말한다.

## 누구나 예술적 창조를 하고 있다

릭 루빈은 제일 먼저 “창의성이 결코 드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측면”이자 “인간의 생득권”이라고 선언하며 이 책을 시작한다. 대화를 할 때도, 방 안의 가구를 재배치할 때도, 교통체증을 피해서 새로운 퇴근길을 탐색할 때도 언제나 창조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창조를 예술이라는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변의 외부 세계를 감각하고 이를 해석하고 반응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변화하는 과정이 모두 창조적인 것이다. 저자가 이렇게 예술과 창조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창조적인 것으로 보자는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다.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자체를 재창조하는 '예술가적인' 태도로 삶을 다시 보자는 것이다.



이 책의 흐름은 창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한 짧은 아포리아적<sup>1</sup> 에세이가 모인 전반부와 창조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에 대한 후반부로 크게 양분된다. 예술가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 경험들을 따라 들어가면서 창조적 태도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다 보면, 이내 저자가 곡을 짓고 음반을 발매하면서 깨달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나게 된다. 책의 구성 자체가 예술가의 창조적 관점과 그에 따른 행동 원칙을 제시하는 셈이라, 자연스럽게 창조적 삶의 이론과 실천의 조합을 터득하게 된다.

## 창조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다

그러면 ‘창조적’으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창조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책을 요약하는 가장 압축적인 문장은 서두에 있는 로버트 헨리의 문장이다. “예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술을 만들 수밖에 없는 멋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배경’과 같은 챕터에서 저자는 바로 그 창조적 환경을 만드는 일에 모든 예술가가 매진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깔끔한 책상이나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처럼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집중이 잘되는 환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의 모든 음향기기를 동시에 틀어놓고 작업했던 앤디 워홀의 방법이나 방음 효과가 있는 코르크를 벽에 붙이고 귀마개를 착용했던 마르셀 프루스트의 방법도 있다. “내가 연결감을 느끼는 장소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산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통하는 일관된 창조적 환경은 없다. 자신에게 어울리고 적합한 환경을 먼저 찾아내는 과정에서부터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을 찾았더라도 그것이 늘 통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술의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 도움이 되는 환경도 달라진다.” 창조적 작업의 특정 단계마다 서로 다른 환경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아야 하겠지만, “틀린 방법은 없다.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뿐.”

마찬가지로 창조적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마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규칙’과 ‘주의 산만’의 챕터에서는 보통 무질서함, 산만함이 창조력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통념과 달리 산만함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예술가의 한 도구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산만함은 지금, 눈앞, 현재의 과업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동시에 이는 무의식을 통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주의 산만은 마음의 한 부분을 바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린 채 뒤편에 받아들이게 해준다.” 그러니 집중력과 조용함에 대한 강박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다. 산만함은 미루기와 다르다는 것이다. “주의 산만은 작품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지만, “미루는 것은 쉬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sup>1</sup> 아포리아(aporia): 대화법을 통하여 문제를 탐구하는 도중에 부딪치게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나 관점에서 새로이 탐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산만함은 지금, 눈앞, 현재의 과업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동시에 이는 무의식을 통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 타인의 사례를 읽는 독서법

창조적 작업을 하기 위한 환경, 특히 마음의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릭 루빈의 이 산문집은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음악 작업, 특히 협업적 프로듀싱을 위주로 해왔던 저자의 이력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특히 앞서 말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주로 다루는 책의 후반부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창조적 작업을 위한 팁들의 사례가 대체로 음악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경험들이라는 점이고, 대중음악 아티스트와 프로듀서의 사례들이 집중된다. 처음 읽다 보면 낯설긴 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사례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해서 이해하곤 하지 않던가.

그렇게 본다면 릭 루빈이 음악계의 창조 및 협업 과정에서 생긴 사례를 들 때마다 자기에게 적절한 경험을 떠올리며 독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상 작업이 저자가 제안하는 팁들을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지 못하는 음악 프로듀싱 작업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대중음악의 음반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가는 재미는 덤이다. 📖

김건형 •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며 살펴본 ‘최근 3년간 예술 분야 인기 도서 분석’

더위가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전시회나 미술관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으로 가까이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면 예술 서적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유명 박물관의 예술품이나 흥미로운 작품 및 작가를 선정해 이에 얹힌 배경지식까지 알려주는 양질의 예술 서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도 최근 3년간 예술 분야에서 인기가 많았던 도서들의 순위를 살펴봤다.

정리 이해민 자료제공 각 출판사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분석 기간 2021.9.1~2021.9.30. / 2022.9.1~2022.9.30. / 2023.9.1~2023.9.30.(검색 조건: 아동 도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2021



### 《90일 밤의 미술관: 루브르에서 여행하듯 시작하는 교양 미술 감상》

이혜준·임현승·정희태·최준호 지음 | 동양북스 | 2021

루브르박물관의 관람 동선에 맞춰 작품을 소개한다. 10년 넘게 프랑스 국가 공인 가이드로 활동한 4명의 저자가 한국에서 온 관람객에게 꼭 소개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했다. 작품 설명 뿐 아니라 함께 감상하면 좋을 작품이나 작품에 얹힌 짧은 뒷이야기도 함께 소개한다.

1

305회

《90일 밤의 미술관: 루브르에서 여행하듯 시작하는 교양 미술 감상》  
이혜준·임현승·정희태·최준호 지음 | 동양북스 | 2021

24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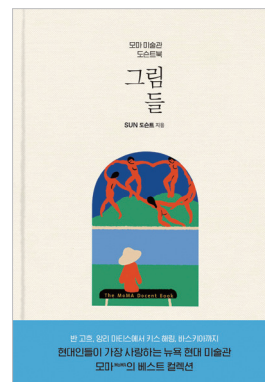
《90일 밤의 미술관: 하루 1작품 내 방에서 즐기는 유럽 미술관 투어》  
이용규·권미예·명선아·신기환·이진희 지음 | 동양북스 | 2020

199회

《예술의 주름들: 감각을 일깨우는 시인의 예술 읽기》  
나희덕 지음 | 마음산책 | 2021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022



### 《그림들: 모마 미술관 도슨트북》

SUN 도슨트 지음 | 나무의마음 | 2022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부터 에드워드 호퍼의 ‘주유소’ 등 모마(MoMA, 뉴욕현대미술관)의 작품들을 미국 현지 미술관 해설가가 소개하는 도슨트 북이다. 어렵다고 여겨졌던 현대미술의 대표작들을 저자 특유의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설명했다.

1

630회

《그림들: 모마 미술관 도슨트북》  
SUN 도슨트 지음 | 나무의마음 | 2022

411회

《이건희 컬렉션: 내 손안의 도슨트북》  
SUN 도슨트 지음 | 서삼독 | 2022

36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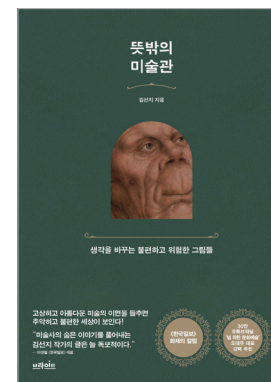
《안목》  
유홍준 지음 | 놀와 | 201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책 한 권으로 떠나는  
예술 여행,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예술 분야 서적

예술 분야 상위 도서들을 살펴보면, 예술 작품과 작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한 책들이 인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모두 저마다의 관점에서 작품을 큐레이션하고, 여기에 저자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더해 예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책들은 예술이 어렵다거나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진입장벽을 낮춰준다.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 전시회나 미술관에 가기 어렵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예술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㉞

2023



### 《뜻밖의 미술관: 생각을 바꾸는 불편하고 위험한 그림들》

김선지 지음 | 브라이트 | 2023

〈한국일보〉에 연재되던 예술 칼럼니스트 저자의 글을 엮어낸 책이다. 오랫동안 거장으로 불리던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질문에 따라 그림을 보다 보면 뜻밖의 관점으로 그림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작품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풍부하게 소개된 책이다.

1

308회

《뜻밖의 미술관: 생각을 바꾸는 불편하고 위험한 그림들》  
김선지 지음 | 브라이트 | 2023

291회

《그림들: 모마 미술관 도슨트북》  
SUN 도슨트 지음 | 나무의마음 | 2022

287회

《예술피의 전당: 서양미술 편(예술에 관한 세상의 모든 썰)》  
KBS 〈예술피의 전당〉제작팀 지음 | 교보문고 | 2023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 감각 너머를 상상하기 위한, 예술 서가 독서법

인간은 오감(五感)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예술은 인간의 감각을 확장한다.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별생각 없이 보고 지나치던 건물에서 선(line)과 패턴을 보게 되고, 지하철 손잡이에 녹아 있는 속도의 축적과 시간의 질감을 느끼게 된다. 예술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한다. 또 예술은 우리가 오감 너머를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다. 지금 읽고 있는 이 페이지의 촉감과 나의 호흡, 손가락 끝의 온도가 뭉쳐 지금이라는 ‘순간’이 시공의 ‘입체’가 되듯, 예술은 우리의 세계를 밋밋한 평면에서 생생한 입체로 바꾸어놓는다. 그래서 예술은 단순히 취미일 수 없고, 일상에 덧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옵션일 수가 없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미적 경험은 한 인간의 삶에서 인생 경로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이다.

글 박순영(독서 컨설턴트) 참고도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순영 지음, 미래문화사, 2023)



### 예술은 누구에게나 가까이에 있다

예술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지침과 태도에 관여한다. 세상이 ‘미적(美的)’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둘러싼 이 세계가 대단히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대상이 생기면 그것을 탐구하며 고민하고 가꿔나가기 마련이다. 예술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추동하고, 그들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가꿔나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예술은 어쩐지 유식하고 돈 많은 사람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엘리트나 부유층, 미디어에 의한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조작된) ‘구별 짓기’이다. 현대인이 가진 기술적·물적 조건에서 유명한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대체로 어렵지 않다. 다만,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앎과 깨달음, 감정의 종류와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술이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감상하기에 필요한 몇몇 지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규칙을 거의 모르는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거나 좋아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 보이고 들리는 것 너머로 한 발짝 다가서기

그림(회화)과 사진은 모두 이차원 평면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는데, 사진에는 그림에서 느끼기 힘든 특유의 속도감이 있다. 그림이 공간의 세 축을 직조하여 시간성을 부여한 반면, 사진은 단칼의 컷으로 시간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이 마치 켜켜이 쌓아 놓은 지층과 같다면 사진은 시공의 단면을 딱 잘라 영원히 박제해 놓은 것과 같다. 그림은 보통 미술관(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많은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나 갤러리(작품을 감상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림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직접 미술관에 가서 맨눈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경험과 모니터나 휴대전화 액정으로 작품을 보는 것, 둘 사이에는 생각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모니터 속의 그림은 네모난 틀 안에 픽셀 단위로 재구현된 것이지만, 미술관의 그림은 특정 공간 안에서 의도에 의해 배치된 것이다. 그림은 조명과 동선, 공간감을 고려하여 밀리미터(mm) 단위로 계산된 위치에 자리한다. 눈으로 직접 느끼는 질감과 내 걸음이 놓인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입체감을 얻는다. 보통 카드회사나 백화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친근한 작가의 전시나 작품전을 여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라.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평론을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만약 마음에 드는 평론가를 발견했다면, 그가 평론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입문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듣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려면 ‘보는’ 예술작품에 비해 더 많은 상상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클래식 음악은 처음 접하면 집중력을 잃고 잠들기 일쑤인데, 중심이 되는 멜로디를 못 잡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중심 서사가 있고 회화에는 중심 소재가 있다. 이것에 자연스럽게 집중해야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는 멜로디가 있고 전개 과정이 있고, 이 부분에 주목하면 전체 흐름이 들린다. 클래식도 디지털 음원이 아니라 전용 홀에 가서 들어보아야 한다. 전용 홀은 무대의 음향이 객석으로 전달되는 최적의 길을 만들어놓은 과학적 건축물이다. 아니, 전용 홀은 고래만 한 하나의 악기와도 같다. 거대한 악기 속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운몸으로 감상함으로써 청각 그 이상의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뮤지컬은 오페라에 비해 사전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관객이 재미를 느끼는 것, 대중적인 색채가 강하다. 벽면 하나가 무너진다거나 무대가 회전한다거나 하는 등 무대연출도 실감 난다. 또 뮤지컬은 넘버(뮤지컬 음악)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짜이는데, 작품당 넘버는 보통 15~25곡이며, 송스루(일반 대사로 노래로 표현하는 뮤지컬)의 경우 30~40곡 정도 된다.



연극 관람은 암전 속에 앉아 일상과 끊어진 해방감에서부터 시작된다. 연극은 오랫동안 공연된 작품 위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연극에서는 사전에 설치된 무대가 극의 흐름에 따라 여러 공간으로 변주되는데, 그만큼 무대연출이 상징적이며 창조적이다. 무대의 제약을 벗어나 있는 영화는 연출가의 재량이 크고 전국적인 주목도가 있지만, 상영 횟수와 상영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영화 관람은 분명 사적(私的)인 경험이지만, 특정한 상영 시기에 함께 감상을 나눈다는 점에서 공적(公的)인 사건이다. 흥행하는 영화는 일 년 중 몇 주 동안은 사회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일은 그 영화가 상영된 시대를 음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예술 서가(600년대)에서 시작하자

예술은 표현이고 그 표현은 함축적이다. 그래서 종교와 신화,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을 사용한다. (서구 작품의 경우) 기독교의 일화나 그리스·로마 신화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신화들은 중세는 물론 현대 작품에서도 많이 차용되고 있다. 동양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불교나 각종 역사적 사건을 미리 알아두면 감상과 해석이 풍부해진다. 이런 도서는 종교나 신화 자체에 집중한 종교 서가보다는 예술의 표현에 집중한 예술 서가에서 찾아보면 좋다.

작품을 감상했다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그 감상을 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재밌다”, “좋았다” 수준의 평은 하나마나이다. 예술 서가에서 가벼운(정말 어렵지 않은 입문서가 많다) 입문서나 이론서를 보면 어떻게 써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 ‘누가(무슨 의도, 작가의 스타일, 작가의 전작들), 무엇을(어떤 주제와 소재), 어떻게(어떤 도구나 기법)’ 정도는 들어가게끔 글을 써보자.

마지막으로 예술과 관련한 잡지 하나를 정해 구독하거나 꾸준히 읽기를 추천한다. 예술 감상에 필요한 지식과 양질의 정보를 얻고, 배우나 감독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든, 감독이든, 작가든, 연출가든, 익숙한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술과 친해지는 지름길이다. ❶



박순영 •

2016년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만들고 독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독서 동아리 멘토 및 토론, 독서, 인문학 등의 강연을 해오고 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한 장의 감성



# 함께 나누다



국립중앙도서관 NEWS

2024  
데이터 콘퍼런스 개최



〈2024 데이터 콘퍼런스〉개최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9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데이터센터로서의 도서관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2024 데이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을 통한 지식문화자원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참가자는 도서관 관계자, 학회, 연구기관, 학술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의 강연 및 주제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30

2024년 책이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안내



‘2024년 책이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책이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를 9월 27일(금)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책이음서비스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그리고 관련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책이음서비스 발전 및 이용 활성화, 시스템 혁신 방안을 다루는 ‘아이디어’와 서비스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사례를 다루는 ‘우수사례’로 나뉜다. 접수된 응모작은 10월 초순에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평가가 진행되며, 시상식은 10월 중순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세미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전자우편(juliang@korea.kr)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문의 정보기술기반과 02-3483-887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8월 사서추천도서’ 8권 선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8월 사서추천도서’ 8권을 발표했다. 유아 대상으로는 《나는 모으는 사람》(옥돌프레스)과 《바나나 선생님》(북뱅크)이 선정됐다. 초등 저학년 분야에서는 《시원하게 도와주는 북극곰 센터》(북스그라운드)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일어난 일》(문학동네)이 추천됐다. 초등 고학년 대상 추천 도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북멘토), 《사이다 쌤의 비밀 상담소: 사춘기 5, 6학년을 위한》(노르웨이숲)이다. 청소년 분야로는 《광고의 모든 것: 광고의 역사부터 애드테크까지》(그림씨)와 《세상 끝의 고래》(휴머니스트)가 선정됐다. 자세한 책 정보를 담은 추천사와 지난 목록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의 자료검색->사서추천도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02-3413-4856

■ 유아



《나는 모으는 사람》  
안소민 글·그림 | 옥돌프레스  
2024



《바나나 선생님》  
도쿠다 유키히사 글·야마시타 고헤이  
그림 | 김보나 옮김  
북뱅크 | 2024

■ 초등저



《시원하게 도와주는 북극곰 센터》  
황지영 글·박소연 그림  
북스그라운드 | 2024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일어난 일》  
에밀리 보레 글·뱅상 그림  
윤경희 옮김  
문학동네 | 2024

■ 초등고



《여름과 가을 사이》  
박슬기 글·해마 그림  
북멘토 | 2024



《사이다 쌤의 비밀 상담소  
: 사춘기 5, 6학년을 위한》  
김선호 글·신병근 그림  
노르웨이숲 | 2024

■ 청소년



《광고의 모든 것: 광고의 역사부터  
애드테크까지》  
김재인 글·위수연 그림  
그림씨 | 2024



《세상 끝의 고래》  
크리스 빅 지음 | 정주연 옮김  
휴머니스트 | 202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독도체험관 재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7월 8일(월) 어린이독도체험관을 재개관했다. 새 단장한 어린이독도체험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트렌드와 스토리 기반의 디지털 체험 요소가 강화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너랑 나랑 독도 한 바퀴’ 콘셉트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와 VR 독도 바다 체험, 인터랙티브 터치월 등이 포함되었으며, 배우 이영애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음성 가이드도 제공된다. 어린이독도체험관은 도서관 운영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하 1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구자료실도 개선된 환경으로 7월 1일(월)부터 재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5



어린이독도체험관 내부

국외 학술 DB 활용  
교육 실시



국외 학술 DB 활용 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외 학술 데이터베이스(DB) 활용을 위한 교육을 연간 7차에 걸쳐서 실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독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웹(Web) DB의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돕기 위함이다. 교육 대상은 정기이용증을 발급한 도서관 이용자들로, 선착순으로 선발된 약 50명의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달에 운영될 교육은 총 3개 과정(5~7차)으로 9월 4일(수), 9월 6일(금), 9월 11일(수)에 진행되며 예술·사회과학·기술과학 분야에 대해 DB와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문의 디지털정보활용교육 담당자 010-5187-9181

국립세종도서관,  
하반기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운영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운영 포스터

국립세종도서관은 9월 3일(화)부터 11월 6일(수)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정책 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상반기(3~5월)와 하반기(9~11월)에 ▲업무 창의력 및 정책 역량 향상을 위한 ‘키움’ ▲문화·예술 등 인문 소양 함양을 위한 ‘채움’ ▲취미 생활 위주의 실습 강의인 ‘즐거움’ 등 총 3개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044-900-9073



국내 도서관 NEWS

작년 공공도서관 이용자 2억 200만여 명…  
전년보다 15% 증가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방문자는 2억 226만 명으로, 전년(1억 7,500만 명)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도 2,700만 명으로 7.5% 늘어나며, 도서관 이용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확인됐다. 공공도서관 수는 지난해 1,271개로 전년보다 35개 관(2.8%)이 증가했으며, 특히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각각 10개 관과 8개 관이 늘어나 수도권외의 도서관 확충이 두드러졌다.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4만 38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됐다. 한편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1관당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4.6% 늘어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밖에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수와 장애인용 자료 수도 증가해, 도서관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www.libs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일(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김동조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미디어위원회 위원장, 김창섭 서울대학교 우리문화탐사회 회장, 박명순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손병덕 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 엄혜숙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자 등 15명이다.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3년이며, 이번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분야 위원을 3명(기존 1명)으로 강화하고, 심의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위원 4명을 연임해 구성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식 이후 임시위원회를 통해 호선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  
황금숙 대림대학교 교수 임명



황금숙 신임 국립장애인도서관장(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 황금숙(64)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가 임명됐다. 황 신임 관장은 정보시스템 개발과 기록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1998년부터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서관미디어정보 및 독서교육 전문가로 활동했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문 인력 양성과 장애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역량 강화, 스마트 환경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 방안, 독서 치료 등의 연구에 힘썼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정책 워킹그룹’ 출범



워킹그룹 회의(출처: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가 8월 5일(월) ‘2024 도서관정책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은 앞으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추진 과제 중 ▲지역 문화 활성화 ▲사회적 포용 ▲지식자원 공유·디지털 전환 ▲국내외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과제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워킹그룹은 8월 말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오픈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까지 분과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도서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  
하단도서관 개관



하단도서관 전경(출처: 하단도서관)

부산시 사하구의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이하 하단복합센터) 2~5층에 하단도서관이 7월 2일(화) 개관했다. 하단복합센터에는 하단도서관과 하단생활문화센터, 사하구 가족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하단도서관은 연면적 1,897.8㎡ 규모로 175석의 좌석과 3만 3,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디지털체험관 등을 갖췄으며, 도서관 전체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하단도서관의 주요 콘텐츠로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 전시 ▲EBS 캐릭터 팝아트 전시 ▲챗지피티(ChatGPT) 활용 그림책 만들기 체험관 ▲실감형 체험관 ‘팡팡책놀이터’ 등이 있다.

강원도 홍천 갈마곡리  
별빛나루도서관 개관



홍천 별빛나루도서관(출처: 홍천군)

강원도 홍천 신도심에 자리한 별빛나루도서관이 7월 25일(목)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홍천읍 갈마로 9길 13 일원에 조성된 별빛나루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434.54㎡ 규모로 지어졌다. 건립 사업비로 59억 원(국비 16억 원, 도비 9억 원 포함), 개관 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됐다. 별빛나루도서관은 ‘아름다운 도서관’을 모토로 제작됐다. 운영에는 지리정보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인 AI북큐레이션, 가상체험스튜디오, 디지털미디어갤러리 등 다양한 ICT 기술이 활용된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유아·어린이자료실과 북스텝, 2층에 일반자료실, 가상체험스튜디오, 강의실, 3층에는 청소년자료실, 다목적실, 동아리방이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다.



## 국외 도서관 NEWS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4년도 총회 결과 보고



(출처: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6월 20일(목) 열린 2024년도 총회에서 정관 변경안과 2023년도 회계 승인안을 통과시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총회는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50여 개 회원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의제로는 IFLA의 비영리기관 등록 신청을 위한 정관 변경과 네덜란드 민법에 맞춘 정관 개정이 포함되었다. 회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사회에 비영리기관 등록 신청을 승인했으며, 향후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차기 총회는 2024년 9월 정보미래정상회의(Information Futures Summit)와 함께 개최된다.

### 네덜란드국립도서관, 2024~2030년 장서 전략 발표



네덜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KB)은 2024~2030년 장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변화하는 출판문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출판물 외에도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KB는 디지털 우선정책을 통해 가능한 경우 인쇄본보다 디지털본을 우선 수집하며, 특별한 출판물의 물리적 보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웹아카이브와 소셜미디어 아카이빙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네덜란드의 디지털 문화를 포착한다고 밝혔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출판 계약: 저작자와 출판사를 위한 툴킷’ 공개



‘출판 계약: 저작자와 출판사를 위한 툴킷’(출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난 6월 20일(목), ‘출판 계약: 저작자와 출판사를 위한 툴킷(Contracts in Publishing: A toolkit for authors and publishers)’을 공개했다. WIPO는 이번 툴킷이 출판계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와 계약 옵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특히 저작자와 출판사 양측의 이해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의 작가와 비주얼 아티스트, 번역가 및 출판사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출판과 공동 출판,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책은 맛만 볼 것이고  
어떤 책은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며,  
또 어떤 책은 씹어서 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 프랜시스 베이컨

